

ART BUSAN MONTHLY

예술부산

2025·5 VOL.239



우수콘텐츠잡지
2023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2025.
6.21.
~ 22.
토 ~ 일

49TH BUSAN DONGRAE NATIONAL TRADITIONAL ARTS COMPETITION

부산민속예술관
송유당·대연습실









제48회
부산동래전국전통예술 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자 강윤선




제49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참가종목 | 전통 무용·기악 참가부문 | 중·고등부, 신인부(무용), 일반부, 명인부

시 상 | 명인부) 종합대상- 국무총리상 / 최우수상 -문체부장관상

주최·주관 |  서울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KRX 한국거래소  DRB 동일고무벨트  부산시설공단

 국립부산국악원  (사)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사)대한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홈페이지 | www.busanminsok.or.kr(공지사항 - 대회요강 -참가신청서 내려받기 가능)

오시는길 |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195-46 금강공원 내 부산민속예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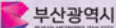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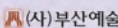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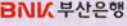



문의전화 | TEL:(051)555-0092 FAX:(051)556-2786 E-mail:92@pusanminsok.or.kr

부산미술의
이것이
표현한다

(사)부산미술협회와 (주)디자인하우스 공동주최협업하는
BFAA 국제아트페어
The 14th Busan Fine Arts Association International Art Fair

2025. 6. 26. ^{THU} ▶ 29. ^{SUN}
부산 벅스코 제2전시장

부산미술협회와 디자인하우스가 공동주최협업하는
BFAA 국제아트페어가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갑니다
동시대 현대미술을 추구하는 500여명의 미술전문작가가 직접운영하는
미술문화 소통의 장으로 지역미술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주 최 |  (사)부산미술협회  designhouse
주 관 | BFAA 국제아트페어 운영위원회
후 원 |  부산광역시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KNN
특별협찬 |  BNK 부산은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메세나협회  ILBO (주)일주저엔에스
문 의 | 부산미술협회 홈페이지 : www.bfaa.or.kr

2025 부산음악대축제 I - IV BUSAN MUSIC FESTIVAL

예술총감독 | 김소형

05. 13. [화] 부산음악대축제 I **신인음악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05. 14. [수] 부산음악대축제 II **실내악의 밤**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05. 15. [목] 부산음악대축제 III **그랜드피아노페스티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5 Pianos 70 Pianists)

05. 16. [금] 부산음악대축제 IV **오페라 갈라콘서트**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사랑의 묘약 | 카르멘)

2025. 05. 13.[화] - 16.[금] 19:30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 SUNDAY | MONDAY | TUESDAY | WEDNESDAY | THURSDAY | FRIDAY | SATURDAY |
|--|--|---|--|---|--|--|
| | | | | 1 김경순 개인전 씨줄과 날줄의 외출 (3층4층전시장) 010-4577-7386 | 2 김경순 개인전 씨줄과 날줄의 외출 (3층4층전시장) 010-4577-7386 | 3 부산연예협회 제39회 청소년예술제 부산청소년댄스 및 가요제 (엑선) 오후 2시 051)646-7343 |
| 4 | 5 | 6 | 7 가야금(2층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고장구&가곡교실 (2층연습실) 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야간)부산사진작가협회 간사회 051)631-4111 | 8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아카데미 한국무용 교실 (4층연습실) 14시~17시50분 사진아카데미 10시~11시50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 9 | 10 라온콰이어합창단 제2회 라온드림콘서트 17시 30분 010-4180-1961 |
| 11 부산건축가회 청소년예술제 9시, 051)241-4011 (오전오후야간) 부산건축가회 청소년예술제 051)241-4011 | 12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 13 김정현의 평평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 14 점심바스킹 가야금(2층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고장구&가곡교실 (2층연습실) 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 15 어릴적에 동그라미그리기 혹부리영감과 도깨비 9시50분, 010-8557-8922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한국무용 교실(4층연습실) 14시~17시50분 사진아카데미 10시~11시50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 16 어릴적에 동그라미그리기 혹부리영감과 도깨비 9시50분, 010-8557-8922 | 17 부산국악협회 제39회 청소년예술제 9시, 051)644-5211 부산국악협회 제39회 청소년예술제 대기실(4층연습실) 051)644-5211 (오후야간)부산문인협회 제39회 청소년예술제 청소년 시 낭송대회 051)632-5888 |
| 18 2025 갈매랑축제 생활예술인 노래경연대회예선 14시, 051)646-7343 부산미술협회 제39회 청소년예술제 학생그림공모전 (3층4층전시장) 051)632-2400 | 19 부산미술협회 제39회 청소년예술제 학생그림공모전 (3층4층전시장) 051)632-2400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 20 부산미술협회 제39회 청소년예술제 학생그림공모전 (3층4층전시장) 051)632-2400 김정현의 평평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 21 점심바스킹 부산미술협회 제39회 청소년예술제 학생그림공모전 (3층4층전시장) 051)632-2400 가야금(2층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고장구&가곡교실 (2층연습실) 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 22 남구문화원 2025년 남구문화원콘서트 13시, 051)624-1333 부산미술협회 제39회 청소년예 술제 학생그림공모전(3층4층전 시장) 051)632-2400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한국무용 교실(4층연습실) 14시~17시50분 사진아카데미 10시~11시50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 23 한국다문화예술원 제15회 한국다문화예술대상 시상식 14시, 010-8921-5588 부산미술협회 제39회 청소년예술제 학생그림공모전 (3층4층전시장) 051)632-2400 | 24 부산연예협회 제39회 청소년예 술제 부산청소년댄스 및 가요제 (본선) 14시 부산미술협회 제39회 청소년예 술제 학생그림공모전(3층4층전 시장) 051)632-2400 부산꽃예술작가협회 제39회 청 소년예술제 청소년꽃다발만들기대 회(2층연습실) 051)612-2604 (오후오후)부산꽃예술작가협회 제39회 청소년예술제 청소년꽃다발만들기대회 051)612-2604 |
| 25 뮤즈라이트 뮤즈라이트 공연 010-2352-3767 14시 | 26 최혜민 개인전(4층전시장) 010-4580-3344 김미현 개인전(3층전시장) 010-5218-0087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 27 최혜민 개인전(4층전시장) 010-4580-3344 김미현 개인전(3층전시장) 010-5218-0087 김정현의 평평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 28 점심바스킹 이디스 트크를 세션발코니 010-4668-2334 19시30분 시작 최혜민 개인전(4층전시장) 010-4580-3344 김미현 개인전(3층전시장) 010-5218-0087 가야금(2층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고장구 & 가곡교실 (2층연습실) 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 29 최혜민 개인전(4층전시장) 010-4580-3344 김미현 개인전(3층전시장) 010-5218-0087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한국무용 교실(4층연습실) 14시~17시50분 (오전)사진아카데미 10시~11시50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 30 최혜민 개인전(4층전시장) 010-4580-3344 김미현 개인전(3층전시장) 010-5218-0087 | 31 최혜민 개인전(4층전시장) 010-4580-3344 김미현 개인전(3층전시장) 010-5218-0087 |



ART BUSAN MONTHLY VOL.239

2025 MAY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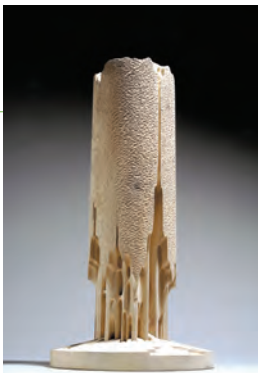
CONTENTS

권두칼럼

08 위기의 시대, 예술이 전하는 자유와 평화의 목소리 _ 신한춘

예서제서

- 10 2025 부산예총 갈매랑축제
- 12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14 2025 걷다가 만나는 버스킹
- 15 제22회 부산국제연극제
- 18 2025 부산음악대축제 I-IV
- 20 ART BUSAN 2025
- 22 부산문인협회 봄 문학기행 _ 문인선
- 26 제33회 열매전
- 28 제23회 문신미술상 - 김문규 조각가 선정
- 29 제64회 길동인전
- 30 제2회 수로다화전 - 한국의 아름다운 병화瓶花
- 32 2025 글로벌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부산시 문화경청 시민 워킹그룹'
- 34 부산근현대역사관 - 신선한 유산, 예술로 미래를 열다
- 36 제43회 부산연극제 - 시민평론 아카데미 우수작I



에너지 _ 은행나무, 235×35×70cm, 2024

표지 _ 김문규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명예교수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및 이탈리아 카라라 국립미술학교 졸업
1990~1997 이탈리아 유학 및 작업 활동
대한민국 명장 심사위원
개인전(14회) 서울, 부산, 이탈리아, 프랑스
단체전 및 기획전 400여 회



포토에세이

38 황매산 철쭉 _ 하선운

時雨일기

42 너무 가벼워서 가벼웠던 _ 문경희

인물포커스

46 신임 감사 윤종국 _ 박준영

예인탐방

48 연출가 이기호 _ 백근영

예술가열전 232

50 화백 송대호 _ 정혜주

손으로 쓴 문학

54 안개비 _ 손무경

들어다보기

56 무용/ 제34회 부산무용제 _ 함수경

60 미술/ 『한국 근현대 화가들의 부산시대』 _ 박진희

62 연극/ 진정 '시민이 연극보기 좋은 도시'를 위하여 _ 최용혁

64 미술/ 심준섭 '인터-넥서스INTER-NEXUS' _ 백근영

기획연재

66 건축과 서예XI

- 정법한 사세를 갖춘 기장의 청정도량 영림산 안적사 _ 이현주

70 부산 도심 하천 복원 전략, '뚜껑(복개) 걷어내기'부터 출발해야 _ 심수화

74 예총 전시·공연 뉴스

78 신간 안내

80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5년 5월 통권 239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라-01255)

발행일_ 2025년 4월 25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p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김두진(건축가회), 강명옥(국악협회), 남선주(무용협회), 박혜숙(문인협회), 최장락(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기자_ 박준영, 정혜주 객원기자_ 백근영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종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 예술이 전하는 자유와 평화의 목소리

글 _ 신한춘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 회장

역사 속에서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술문화가 제외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예술혼의 흔적은 부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예술가는 부산으로 남하해 창작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중섭의 「길 떠나는 가족」은 전쟁의 풍경을 담아낸 대표작이며, 시인 구상은 비극적인 전쟁을 정서적 기반으로 삼아 『초토의 시』를 발표했습니다. 부산 1세대 서양화가 임호는 종군 화가로 활동하며 전쟁 당시의 모습을 작품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스페인 내전 중 독일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마을 게르니카를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은 입체주의적 기법과 복잡한 구성을 통해 전쟁의 잔혹함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렬하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1951년에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고발하는 작품인 「한국에서의 학살」을 완성하며, 단순한 화가를 넘어 전쟁의 위협을 경고하는 사상가이자 평화주의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부산시는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지부와 함께 27년째 6.25 참전 유엔 전몰용사 추모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희생된 유엔 전몰용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그들의 용기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자리입니다. 예술가들이 남긴 역사적 기록들은 젓더미 속에 묻히거나 세월 속에 사라져가는 기억을 붙잡아 재조명하며, 자유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게 합니다.

전쟁만이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극단적인 날씨, 물 부족, 식량 부족, 생태계 붕괴, 신종 바이러스 등의 문제를 촉발하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일링 Global Boiling 시대를 맞아 많은 국가는 기후 친화적 구조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가 토마스 브루더만 교수는 서로 동기부여 하며 자발적으로 기후 친화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한국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통해 이러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지부 회원들도 캠페인에 동참해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부산 소재 7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친환경 활동인 '비치코밍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느끼고 직접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이 캠페인은 해안가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를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아트'로 이어집니다. 이는 버려진 사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며 예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는 '줍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줍다'와 '달리기(jogging)'를 결합한 신조어로, 걷거나 뛰면서 길거리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휴식처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이 이러한 활동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예술단체와 환경예술가들은 환경의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선보이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사회를 더 가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킵니다.

K-pop, 미술작품, 연극, 국악 등 한국의 예술문화는 무궁무진합니다. 청년예술가들이 한국의 우수한 예술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문화봉사활동 또한 매우 값진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더 많은 예술가를 포용하고 탄생시켜야 하며, 일상에서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예술문화 도시, 부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2025 부산예총

갈매랑축제

2025. 5. 26. ~ 6. 1.

부산시민공원
다솜잔디광장

예술토픽! Art topping!

토픽(topping)이란 고명을 뜻하는데, 음식에서 주재료는 아니지만 토픽을 하기 시작하면 그 영역은 무한대로 증대되기 시작한다. 어찌 보면 다양성과 융합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토픽기법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매력적인 방식이 아닐까.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예총(회장 오수연)이 주최하는 2025 부산예총 갈매랑축제의 부제는 '예술토픽!'이다. 예술이라는 형태에 과학·의료·봉사 등 갖가지 토픽을 얹어 능동적이고 독창적인 구상으로 예술가와 관객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예총과 11개 단위협회, 부산문화재단, 부산에 위치한 5개의 대학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해 예술의 영역 확장과 가능성을 선보인다.



예술토포! 展은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부산건축가회(동백꽃방), 부산문인협회(고등어방)의 시화전 및 시낭송회, 부산미술협회(다솜갤러리)의 ‘뿌리 깊은 나무’ 부산증권 작가전을 개최하고, 다솜잔디광장에서는 조각가 이창운의 작품을 감상한다.

예술 토포! 공연은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간 다솜잔디광장에서 무대를 선보인다.

식전공연인 한복패션쇼와 남구여성합창단의 무대를 시작으로, 본공연에서는 경기민요, 성악&관악 연주와 합창단, 무용, 색소폰, 대중가요까지 알찬 구성으로 시민들과 만난다. 이 외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협동 공연 ‘효가요제’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예술인 노래가요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생활예술인 노래가요제’(부산연예예술인협회 주관)는 5월 18일 부산예술회관에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만이 6월 1일 오후 4시 30분 다솜잔디광장 야외무대에서 가창력을 선보일 수 있다. 시상은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30만 원, 우수상 20만 원, 장려상 10만 원이 상금으로 지급되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가수인증서가 발급된다.

예술 토포! 체험은 5월 31일과 6월 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다솜잔디광장 전역을 짝 채운 다채로운 행사로 펼쳐진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케플블록 아트놀이와 세계 유명 건축물을 만나볼 수 있는 ‘건축물 모형 만들기’(부산건축가회 주관), 가야금을 직접 만들고 가야금 소리에 맞춰 노래 부르는 ‘만들고 노래하고 즐거운 우리 음악’(부산국악협회 주관), 부산시민대동춤 배우기와 무용 의상을 직접 입고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부산무용협회 주관)와 책 나눔과 문학치료 지도 등의 행사(부산문인협회 주관)와 실크스크린과 스탬프를 이용한 판화체험, 전사 염색으로 나만의 굿즈 제작하기(부산미술협회 주관)가 마련될 예정이다.

부산문인협회 주관의 ‘제34회 시민예술제 백일장’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현장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운문, 산문 각각 초등부·중등부·고등부·대학일반부로 나뉘고 주제 역시 현장 발표되며 참가비는 없다.

부산미술협회에서는 부산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산자랑 10가지 시민예술제 미술실기대회’를 개최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실기대회의 주제는 ‘해양’이며 오전 10시부터 현장접수를 통해 화지를 배부하고 오후 3시 30분에 종료한다. 갈매랑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의 기념사진을 촬영해 즉석에서 출력해 주는 ‘즐거운 나들이 인증샷’(부산사진작가협회 주관)과 인형극과 마임공연으로 아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한마당’(부산연극협회 주관)이 진행된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체험 프로그램’(부산연예예술인협회)에서는 녹음장비와 기타, 키보드, 색소폰, 싱어 송등이 준비돼 있다. 현악기와 타악기 연주체험과 다양한 악기(칼림바, 타악기 등) 만들기 체험을 통해 음악에 대한 친근감을 확대한다.(부산음악협회) 캔디디자인아트를 접목해 만드는 ‘반려식물 키우기(테라리움)’ 체험과(부산꽃예술작가협회 주관)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차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전통 다도의 깊은 향과 다도체험 학습이(부산차문화진흥원 주관) 진행된다.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2025 을사년 춤패 배김새 새봄맞이 출판

2025. 3. 26.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춤의 유산과 자원이 매우 풍부해 '춤의 고장'이라 불리는 부산에서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단체가 있으니, 바로 [춤패 배김새]다.

춤패 배김새는 영남 춤의 대표적인 동작 '배김새'에서 이름을 따 1985년 12월 부산에서 최초로 창단했다. 40여 년간 부산에 뿌리를 내리고 독자적인 색깔을 구축해 오며 한국 춤을 대표하는 예술단체로서 당당히 자존심을 지켜나가고 있다.

타악의 생음악이 강하게 울리며 대기 가득한 봄기운을 불러와 눈부신 생명의 기운을 찬양했다. 공연의 문을 활짝 연 춤패 배김새는 첫 번째 공연으로 춤열림(정신請神)을 선보였다. 연이어 등장한 무겁고 적적하며 우아한 느낌을 준 지전춤 형식은 우리 춤이 가진 의식적이고 상징적인 것들을 응축해 보여줌으로써 전통의 아름다움을 품격있게 완성했다.

춤맞이(오신娛神)에서는 진주교방굿거리춤과 진도북춤, 권명

화류 소고춤으로 한국춤의 멋을 다채롭게 선보였다. 비나리와 살풀이춤으로 구성된 춤내림(송신送神)까지 지루할 틈 없는 치밀한 무대 진행은 전통춤과 창작춤의 공존과 신명을 보여주는 최은희 총감독의 완벽한 연출을 증명했다. 마지막으로 관객과 함께하는 배김허튼춤은 뛰어난 기교나 화려함 없이도 크고 멋스러운 동작으로 삶의 무게가 담긴 몸짓과 소리를 전했다.

배김새춤은 땅을 내리누르듯이 추는 춤사위를 말한다. 이러한 동작은 우리 전통예술이 든든하게 뿌리내려 국가 문화 경쟁력 향상의 근간이 되는 상징이다. 힘을 뺀 듯 여유롭고 소탈한 움직임으로 언제나 넓게 펼쳐진 초원을 연상시킨다는 영남의 춤 속에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는 춤패배김새가 흔든 사랑이는 어깻바람이 넘실댔다.





가수 신정훈



가수 박서희



가수 김정현



가수 박지수

NS BAND

시민을 위한 예술의 향연! 특별한 밤!

2025. 4. 9.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나누면서 무언가를 열광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팬_{Fan}이라 말한다. 지난 4월 '시민을 위한 예술의 향연! 특별한 밤!'은 NS밴드의 팬들이 지른 환호성과 기립박수로 가득했다. 이날 NS밴드는 한 시간가량 색소폰, 일렉기타, 키보드 연주와 보컬의 열창으로

팬들의 열성적인 응원에 보답했다. 박지수가 부른 '넘이시여 잼싸게 오서소'(자모, 쉼)는 그리움과 애절한 마음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었고, 청춘의 터널 속에서 테이프를 감아가며 밤이 지새도록 들었던 주옥같은 음악들은 팬들의 심금을 울리며 깊은 감동을 남겼다.

글_정혜주





꽃단지버스킹



4월 ~ 9월 수요일 오후 12시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무대

4월

부산예총과 부산예술회관 기획으로 진행되는 '점심버스킹 in Madang'이 벚꽃이 만발한 4월 부산 예술회관 야외광장 무대에서 한낮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프랑스어로 음유시인이라는 의미를 담으며,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처음 사용된 버스킹은 음악가들의 길거리 공연을 주로 일컫는다. 예술적 가능성을 드러내고 홍보하는 행위로 주목된 버스킹 문화는 예술가들의 감출 수 없는 재능의 표출 통

로 자리 잡았다. 11개 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는 점심버스킹의 첫 순서는 발라드 가수 3명이 모여 90년대 음악을 중심으로 공연하는 [꽃단지]와 호른 4중주를 선보이는 [더부산혼사운드]의 무대가 올랐다. 열린 공간에서 어떤 예술이든 전공 여부 관계없이 진행되는 버스킹의 실력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관객의 몫이다.

문의_070-7747-0396 / 편집실



더부산혼사운드

재생과 균형이 만들어내는
예술의 흐름,

제22회 부산 국제연극제

2025. 5. 23. ~ 6. 1.

영화의전당
부산시민회관
백양문화예술회관
밀락더마켓 등

부산 최대의 공연예술축제인 제22회 부산국제연극제(정행위원장 손병태, 이하 BIPAF)가 5월 23일부터 10일간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어댑티씨어터,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백양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밀락더마켓, 영화의전당 야외광장까지 부산 도심 전역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번 BIPAF는 '재생과 균형(Regeneration & Balance)'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되며, 특히 우수작 초청과 해외 진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산연극이 세계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해 글로벌 시대를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한다.

극장공연에는 개·폐막작과 '국내·외 우수 초청작', 글로벌 확장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설된 'K-Stage', 어린이를 위한 'BIPAF KIDS PROGRAM', 신진예술가 발굴을 위한 'BIPAF Rookies'가 마련된다. 야외공연으로는 버스킹 형태의 공연인 '다이나믹스트릿'과 시민들이 만들고 공연하는 '10분연극제'가 구성돼 누구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



개막작은 [사르디니아 씨어터Sardegna Theatre]의 <Tragùdia - 오이디푸스의 노래Tragùdia - the song of Oedipus>로, 고대 그리스 비극의 결작,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가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된다. 7명의 배우가 만들어내는 강렬한 에너지와 역동적인 연출, 혁신적인 무대 디자인이 결합해 운명과 맞서는 치열한 순간으로 우리를 초대해 깊은 질문을 던진다. 이 작품은 'Mess Festival Sarajevo'에서 Best Show를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 **Tragùdia - 오이디푸스의 노래the song of Oedipus**
 [이탈리아, 미국, 우루과이 | Teatro di Sardegna]
 5. 23.(금) ~ 24.(토)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폐막작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대표작을 이탈리아 연출가 다리아 데플로리안Daria Deflorian이 연극적 언어로 재해석한 <채식주의자The Vegetarian>이다. 이번 공연은 소설이 지닌 깊이와 강렬한 이미지를 독창적인 연극적 언어로 풀어내 빛과 어둠, 욕망과 광기, 인간의 내면을 탐색하는 무대로 한국 초연이다. 다리아 데플로리안은 섬세한 해석과 연출 스타일로 유럽 연극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 오며, 문학과 연극,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들며 감각적인 무대 구성과 강렬한 서사를 통해 현대 연극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 **채식주의자The Vegetarian** [이탈리아, 대한민국 | INDEX]
 5. 31.(토) ~ 6. 1.(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K-Stage'는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의 <오버더페창: 문전본풀이>, [하땅세]의 <고래바위에서 기다려>, [초록소]의 <서페이스>, [숨다]의 <영농일지>, [극단 맥]의 <비나리>, [극단 코코]의 <의자들 'rebuild'>이 선정되어 경연을 펼친다.

• **고래바위에서 기다려Waiting!** [하땅세]
 5. 24.(토) ~ 25.(일) 어댑터씨어터 2관
 • **비나리BINARI** [극단 맥]
 5. 25.(일) ~ 26.(월)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폐막작] 채식주의자The Vegetarian, 사진제공 부산국제연극제

• **서페이스SURFACE** [초록소]
 5. 27.(화) ~ 28.(목) 어댑터씨어터 2관
 • **의자들 'rebuild'** The chairs 'rebuild' [극단 코코]
 5. 28.(수) ~ 29.(목)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 **오버더페창 : 문전본풀이**Munjeon Bonpuri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
 5. 30.(금) ~ 31.(토) 어댑터씨어터 2관
 • **영농일지Farm Daily** [숨다]
 5. 31.(토) ~ 6. 1.(일)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BIPAF KIDS PROGRAM’은 부산국제연극제와 부산진문화재단에서 마련한 사전 행사로 5월 5일부터 7일, 11일부터 13일까지 세계적인 가족극을 백양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보인다.

- **모리스 할아버지의 아픈 날** A Sick Day for Morris McGee
[이스라엘 | 트레인 시어터]
5. 5.(월) ~ 7.(수) 백양문화예술회관 공연장
- **테일러 메이드** Tailor made [이스라엘 | 오르난 브레이어]
5. 11.(월) ~ 13.(화) 백양문화예술회관 공연장

‘BIPAF Rookies’는 동서대학교와 함께 신진 공연예술가 발굴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신설됐으며, 윤태식 교수 연출의 신체극 <대답 되지 않은 질문 Unanswered Question>을 선보인다. 동서대 재학생 및 졸업생이 함께 참여해 공연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에 기여한다.

- **대답 되지 않은 질문** Unanswered Questions
[동서뮤지컬엔터테인먼트, 아키타이프]
5. 25.(월) ~ 26.(월) 동서대학교 소향실협극장

‘다이나믹스트릿’은 한국, 이탈리아, 태국, 영국의 거리 퍼포먼스 팀들이 선정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영화의전당 야외광장에서 예술 체험 공간과 함께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 **Dynamic Street & 체험 ZONE**(거리극 참가 프로그램)
5. 31.(토) ~ 6. 1.(일) 영화의전당 야외광장

‘10분 연극제’는 시민들이 직접 연출하고 무대에 올라 창작의 즐거움을 나누는 행사로 일반부와 전공부로 구분해 진행한다.

- **일반부 | 전공부** 5. 24.(토) ~ 25.(일) 밀락더마켓

이 밖에 **부대프로그램**으로 NextGen LAB에서는 일본 극단 [Mum & Gypsy]를 이끄는 극작가이자 연출가 타카히로 후지타가 진행하는 ‘마스터 클래스 워크숍’과 해외 페스티벌 산업 관계자들이 각 축제의 운영 방식과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며, 글로벌 예술 축제의 흐름을 탐색하는 ‘Global Forum’, 공연예술단체와 해외 페스티벌 관계자들이 직접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Global Connection’이 준비돼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국내외 초청작 상연 후에는 ‘아티스트 토크’가 마련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며 공연예술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다.

- **부산국제연극제 NextGen LAB**
5. 17.(토) 오후 5시 ~ 9시 / 5. 18.(일) 오후 1시 ~ 6시 부산시민회관
- **부산국제연극제 X Global Forum**(국제 포럼)
5. 25.(월) 어뎁터씨어터 1관
- **부산국제연극제 X Global Connection**(아티스트 교류)
5. 26.(월) 어뎁터씨어터 1관

문의_051)802-8003 / 편집실

[K-Stage]오버더매칭: 문전분풀이, 사진제공_부산국제연극제



초여름의 입구에서 울리는 4가지 밤의 선율

2025년 부산 음악대축제 1-1V

2025. 5. 13. ~ 16.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대극장

5월, 봄의 숨결이 가시고 초여름이 그 자리를 채워가는 계절에 부산이 다시 한번 음악으로 숨 쉰다.

부산음악협회(회장 권성음)가 주최하는 <2025 부산음악대축제 1-1V>가 5월 13일(화)부터 4일간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신예의 탄생, 클래식과 전통 음악, 대규모 협주의 울림, 오페라의 극적 감동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매일 밤 새로운 색을 품은 다채로운 무대로 시민들을 찾아가는다.



13일

〈신인음악회〉가 축제의 문을 연다. 경성대 고신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대 신라대 인제대 등 부산을 대표하는 7개 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유망한 신진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단지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존재를 알리고 증명하는 순간을 맞는다. 신진 음악가들의 대표적 등용문으로 꼽히는 이 무대는 미래 부산 클래식계를 이끌 새로운 스타들의 탄생을 알린다.

14일

〈살내악의 밤〉은 열 개 팀이 각자의 개성을 품고 참여하는 다양성이 깃든 무대다. [부산현악4중주]는 차이콥스키의 「현악 4중주 1번」을 통해 절제와 조화의 미학을 들려주고, [나눔플루트앙상블]과 [하모니카앙상블],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등은 고유의 음색으로 클래식 음악의 깊이를 확장한다. 여기에 [효산가야금앙상블]이 들려주는 구음과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의 「구전심수口傳心授」는 이 축제가 서양 음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국의 정서까지 품는 넓은 스펙트럼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열 팀이 하나의 밤을 채우며 음악의 다양성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장을 마련한다.

15일

그랜드피아노 5대와 70인의 피아니스트가 만들어내는 장대한 협주가 펼쳐진다. 〈그랜드피아노페스티벌〉은 부산지역 5개 대학(부산대 인제대 동의대 동아대 경성대)의 음악학과 학생팀과 부산음악협회 소속 신인 연주자 2개 팀이 참여해, 총 7개 팀이 무대에 오른다. 각각 10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7팀이 무대 위에서 그랜드피아노앙상블 연주를 펼친다. 그랜드피아노 5대(5 Pianos 70 Pianists)가 만들어내는 앙상블로 정제된 리듬과 입체적인 하모니로 공연장을 압도하며, 피아노의 사운드만으로 공연장을 꽉 채우는 새로운 음악적 몰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6일

마지막 날은 〈오페라 갈라콘서트〉로 대미를 장식한다.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들과 [부산청년오케스트라]가 함께 한 무대는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사랑의 묘약」과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 중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오페라는 가장 총체적인 예술이라 한다. 음악과 연기, 서사와 감정을 하나로 엮은 오페라 무대는 축제의 마지막을 극적이고도 풍성한 감동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각기 다른 결의 음악이 하나의 선율처럼 이어지고, 마치 완성된 한 개의 작품처럼 울려 퍼지는 〈2025 부산음악대축제 I-IV〉는 단지 클래식의 향유가 아니라, 부산이라는 도시가 예술과 함께 호흡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며 부산 시민들과 함께 한다.

문의_051)634-1295 / 편집실

| 예서제서

전 세계 20여 개국 110여 개의 갤러리가 참가한 '아트부산 2025'가 올해로 14회를 맞이해 5월 8일(목)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11일(일)까지 부산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메인(MAIN)·퓨처(FUTURE)·커넥트(CONNECT) 섹션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미술 시장의 흐름을 선보인다.

커넥트 특별전(총괄 큐레이터 고원석)에서는 '조각난 세계, 살아있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아티스트 10인의 회화, 영상, 설치, 조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범주의 작업을 소개한다. 미래의 블

루칩 아티스트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퓨처 섹션에서는 설립 4년 미만의 유망 갤러리가 참가한다. 도모헌에서는 아트바젤 마이애미에서 큰 호응을 얻은 정현 작가의 대형 조각이 야외에서 전시되고, '컨버세이션스(CONVERSATIONS)' 프로그램을 운영해 3일간 총 8개의 세션을 진행한다. 부산시와 홍티아트 센터와 협력한 '아트악센트(ART ACCENT)' 프로그램은 오픈콜을 통해 선정한 작가 6인의 기획전시를 선보이고, '영아티스트 어워드'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작가 1인을 선정해 수상한다.

문의_070-4215-3545 / 편집실

ART BUSAN 2025

2025. 5. 9. ~ 11. 벅스코 제1전시장



이광호_Anti fragile series, Electric wire, handmade socket, bulb, 220×180×70cm, 2024, 리안갤러리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올해의 젊은 예술가상, 2013년 (재)예울 올해의 젊은 공예인상, 2017년 브라질디자인아트마켓 (MADE) 올해의 작가상, 2023년 영국 Wallpaper매거진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한 이광호는 홍익대학교 금속조형학과를 졸업하고, 2024년 프리즈 서울과 함께한 조말론과의 콜라보레이션, 에르메스, 펜디, 스와로브스키, 아모레퍼시픽, 젠틀몬스터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작업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안재홍 Jaehong Ahn_Reconciliation of the Three Tyrants, Oil on canvas, 190×250cm, 2023-2024, WWNN

안재홍은 시점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신체에 각인된 단서들, 내면의 열망과 꿈의 형상을 탐색한다. 그의 회화는 끝없는 환영의 추구이며, 고요함과 엄숙함을 유지하고 예술적 균형과 삶에서 공존을 희망한다.

‘현대적 맥락에서의 재구상’을 하는 본 올페는 독일 낭만주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기법과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작품을 창조한다. 디지털과 물리적 영역의 교차점을 탐색하며, 유화로 매끄럽게 렌더링하여 조화롭고 연속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본 올페 Von Wolfe_Ears to the Wild, Oil on canvas, 50×50cm, 2025, 탕 컨템포러리 아트



노벨 문학의 별, 장흥에서 만난 문학의 숨결

부산문인협회 봄 문학기행

셋별보다 더 빛나는 별, 목성보다 더 큰 별
 그 별이 한국에 뜨던 날
 환희의 가슴보다, 설레는 가슴보다
 순간 우리는 어리둥절했다.
 노벨문학상, 그건 쉽게 잡을 수 있는 별이 아니었기에..

부산문인협회에서는 4월 4일 날씨도 좋은 봄날에 한강 작가를 낳은 한승원의 '해산토굴'을 향해 문학기행을 떠났다. 아침 7시에 부산예총 앞에서 3대의 관광버스가 출발했다. 함안 휴게소를 거치고 2시간을 달려 9시 10쯤 도착한 제1코스는 사천 선진리성이다.

조선시대 선조 30년(1597) 왜장 모리 요시나리(毛利吉城)가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에 쌓은 왜성이라한다. 조선 땅에 왜인들이 쌓은 왜성, 왜군 철수 거점으로 쌓은 성이라 한다. 부끄러운 우리 역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얼룩이다. 그러나 그 성안에 왜인들이 조성한 70여 그루의 벚꽃 나무로 인하여, 지금은 벚꽃 명소 중 명소가 되어 있다. 또한 이 성은 3면이 바다였고 그 바다에서 맹활약을 한 우리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있었으니, 이곳은 1592년 5월 29일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처음으로 거북선을 실전에 사용하여 일본의 13척 수군을 전멸시킨 그 유명한 사천양해전(泗川洋海戰)이 있었던 곳이다. 이제야 와보는 건 참 미안한 일이다. 바다가 잘 조망되는 서남쪽에 이충무공사천해전승첩기념비(李忠武公泗川海戰勝捷紀念碑)가 세워져 있다. 그날의 승전을 축하라도 하는 듯, 지금은 무성한 벚꽃밭이 우리를 반긴다.

흥으로 한 수 읊어 본다.

영웅 이순신 장군이여
 벚꽃을 그토록 좋아했던 사무라이들처럼
 벚꽃은 당신의 전설 같은 그날의 승전을 기억하며 피었을까요
 지금 벚꽃이 이 선진리성에 온통 피어
 성이 아니라 벚꽃밭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의 승전보를
 그날의 그 고뇌를
 저 벚꽃들은 알고 있을까요

13척 왜선을 전멸시킨 그 승전이
 저 벚꽃으로 다시 피어나 기뻐하고 있는 걸까요
 저 벚꽃들이 저에겐 단순히 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의 감정을 전해 주는 듯 합니다

후세인 우리는
 그날 당신의 고뇌를 잊고
 벚꽃에만 매료되어
 스스로도 벚꽃인 양
 웃음꽃만 만발합니다
 그날의 당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리 웃을 수 있습니다.

넓은 성안에 벚꽃은 흐드러지게 피어서 우리를 반기니 문 벗(文友)들도 문벗으로 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근심 하나 없는 세상, 무릉도원에 든 듯 여기서 찰칵 저기서 찰칵 모두가 벚꽃으로 피어나는 시간을 지나 기다리는 다음 행선지를 향해야 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 다음 행선지인 주 문학기행을 위해 에너지 보충도 해야 한다. 그 지방의 음식 맛도 보아야 한다. 장흥의 탐진강오리집을 향해 두어 시간을 또 달려야 하나 보다. 12시 20분 탐진강오리집에 도착하니 장흥의 문인 회장님과 임원들이 마중을 나와 주었다. 반갑고 고마운 일이었다. 먹는 재미도 좋아서 이곳의 오리 요리, 양념구이, 탕 등 3가지가 차례로 나와서 입이 즐거웠다. 식사를 하고 난 후 여기서는 짧은 30분의 이동 거리 장흥의 천관문화관으로 갔다. 문화관 앞에서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장흥 문인협회의 회장님과 임원들이 가져온 선물 증정식을 잠시 가진 후 천관문화관을 관람하였다.

여기서부터 안내자는 전국 최초 유일하게 문학 관광 기행 특구가 된 장흥, 문학기행 1번지가 장흥이라며, 노벨문학상의 도시인 여기 와서 글 자랑을 하지들 마란다. 노벨문학상 한강이 있고 영화가 된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원작 작가이자 한강의 아버지인 한승원 선생이 있고, 12권의 대하소설 『녹두장군』의 송기숙 선생이 있고, 영화가 된 『서편제』의 이청춘 선생이 있다. 무엇보다 저 위로 올라가 가사 문학의 효시, 『관서별곡』을 쓴 기봉 백광홍 선생님이 이곳 출신이다. 그 외에도 위백규 선생과 김제현, 김녹춘, 이승우 선생 등이 이 지역 출신이다. 위에 열거한 분들은 천관문화관에 자랑스럽게 자리하고 있는 분들이며 한국 문단사에 길이 빛날

문인들이다. 이곳 장흥은 무엇보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이 있어 더욱 빛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강이여, 그대 어찌 장흥만의 영광이겠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인 것을...

다음 행선지는 저만치 40분 거리 밖에서 가슴 설레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한승원 선생의 ‘달 걷는 집’과 ‘해산토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정작 필자가 만나고 싶었던 곳이다. 달은 어떻게 걷고 토굴은 얼마나 길까? 토굴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도 닦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어 나도 잠시라도 그 토굴에서 가부좌 들고 앉아 볼까? 어떻게 맞이하고 대할까 설레며 갔다. 한길에서 왼쪽 낮은 산을 향하여 비스듬하고 편편한 들판 같은 대지 위에 몇 가구 되진 않지만 잘 다듬어진 기와집들이 여기저기 유럽의 별장식 집처럼 되어 있는 마을이었다. 마을이 주는 이미지는 평온하여 마음마저 아늑해진다. 문득 필자도 이런 곳에 작은 초막이라도 좋으니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러움이 가득 가슴을 채운다.

그 마을은 본래 제 이름이 없었을까? 들어서는 마을 입구에는 한승원 안내 팻말이 나오고 해산토굴 표지석이 사람 키만 하게 서 있고 ‘노벨문학도시 장흥’이라는 표시를 벽면에 크게 써 두어 눈길을 확 끈다. 이 벽면에는 선생님의 작품 속 아래와 같은 명문장을 간간히 적어 놓기도 하였다.

“내가 하늘을 보는 까닭은
말을 하긴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내가 최후에 남겨야 할 말 아닌
말
하나가 거기 있어서입니다”



달 걷는 집과 토굴을 향해 올라가다 중간쯤 길 오른쪽에 나타난 안온하고 단정하여 예의를 잘 갖춘 느낌의 집이 나온다. 금다원이란 깔끔하고 단정한 간판이 있는 걸 보니 차도 마실 수 있는 곳인 듯하다. 대문 대신 아주 낮게 정낭 하나가 걸쳐져 있다.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정낭. 이곳 장흥노벨문학촌에서 보다니! 이루 말할 수 없이 정겹고 반갑다. 이웃과의 신뢰와 믿음, 정직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아닌가! 여기 사람들은 다 사랑해도 좋을 것 같다. 철대문 콕콕 닫고 사는 회색빛 도심과는 너무 비교가 되어서 더 그렇다. 그 곁에는 솟대 두 개도 세워져 있다.

‘아, 이리도 진실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여, 돌아오면서 꼭 사진 하나 갖고 가려!’ 하며 토굴을 향하여 올라갔다. 먼저 달 걷는 집이 나왔다. 달 빠진 연못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연못은 없고 입구에 동백꽃과 복사꽃만 피어 있다. 들어가는 입구의 작은 뜰 한편에 한승원 선생 대표작 『아제아제바라이제』 책 조형물이 있었다. 우리 문인협회 사진작가 최인숙 선생님이 “여기 서보시라”며 필자를 잡아끈다. 덕분에 그 조형물과 사진 한 컷을 했다. 이곳이 한승원 선생님이 후학들을 가르치는 문학 학교인데 지금은 쉬는 중이라고 한다. 달 걷는 집이란 명칭은 선생님의 시집 제목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입구에서 제일 안쪽 마당귀엔 소박하고 수줍게 정자 하나 있다. 見月亭^{견월정}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그렇겠다. 달을 걷는 것도 달을 봐야 걷고 할 게 아니냐. 달 걷는 집과 見月亭^{견월정}, 얼마나 시적이고 낭만적인 조합인가. 초승달을 길을까 만월을 길을까? 견월정, 네가 답하려무나. 달을 좋아하기로 유명한 당나라 시인 이태백은 강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다 익사했다지. 선생님은 ‘달 걷는 집’을 시비에 새겨 놓았는데 “숲속 옹달샘에 빠진 달 바가지로 길어가지고 암자로 달려왔다가/사라진 달 때문에 올라 죽어간 스님./ 강물속 달 길으려다 익사한 이태백 기리는 달 걷는 집”이라 했다.

필자가 십수 년 전에 이곳에 온 적이 있다. 그때 여다지 해수욕장 시비를 보러 왔었는데 마침 한승원 선생님이 계셔서 직접 몇 말씀 듣기도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해 볼 수는 없었다. 그 당시 필자는 어찌 이 600m나 되는 해변을 몽땅 한승원 선생의 시비로만 다 채웠을까? 싶었더니, 그러니까 진즉에 장흥 군수와 장흥 시민들은 오늘을 예측이라도 했었나 보다. 실내에는 선생님의 작품집과 선생님이 쓰시던 타이핑 자판기가 전시되어 있기도 했다. 한강의 사진도 소개되어 있었는데, 그 곁에 서서 필자도 한 컷 했다.

여기서 시와 소설을 가르치고 달을 걷고 하였으리라. 마당서쪽 귀에는 불교의 상징인 작은 탑이 하나 서 있었다. 『아제아제바라이제』, 『땀발의 스님』, 『신기한 목탁 소리』 등 불교에 관련된 작품을 많이 쓰신 것을 봐도 선생은 불교 철학이 깊으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 탑에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삶의 상징적 교훈을 느꼈다. 인생의 삶도 꿈도 탑을 쌓듯 그렇게 쌓아 가라고, 인생도 그런 것이라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듯 하였다. 탑을 쌓듯 열심히 살아온 그 끝에 딸 한강이 노벨문학상이라는 별로 떠오르지 않았느냐고, 달을 제대로 건지신 것이겠다.

달 걷는 집 바로 뒤에 해산토굴이다. 해산^{해산}은 선생님의 호이며 토굴은 집을 낮추어 부른 이름이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다. 선생님의 그 겸손한 성품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선생님의 성품과 토굴이란 이름에 걸맞게 낮고 작은 그저약간은 연약해 보이는 시골집이었다. 그러니까 그 마을 가장 위쪽 산 아래 첫 집이 해산토굴^{해산土窟}이다. 그 토굴 아닌 토굴로 자그마하고 겸손한 이미지의 이 집은 한승원 선생님의 집필실이었다. 물론 온통 작품으로 전시된 작고 낮은 집이었지만, 실제 생가는 인근 회진면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에 있다고 한다.

오늘 기행의 마지막 코스로 여다지 600m의 해변, 선생의 시비가 채워진 해변을 산책하는 코스였다. 여다지 해변은 해산토굴과 달 길는 집에서 앞을 바라보면 보이는 그 마을 자락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해변이다. 연방 봄 햇살을 먹은 꼬막, 바지락의 꼬골꼬골 살이 썩 가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빨발이 넓게 펼쳐져 그 속살을 드러낸다. 그 해변을 두른 소나무 아래 600m의 산책로를 20m간격으로 세워진 한승원 선생의 시비들. 30개의 시비를 읽어주는 해변의 솔바람 소리가 필자의 발걸음을 행복하게 한다. 그중 두 편의 시를 담았다. 한 편은 「시계」란 시고 한 편은 맨 끝 쪽 공중화장실 앞에 있는 「사람꽃」이다. 인간만큼 아름답고 선한 존재도 없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보다 더 잔혹하고 비윤리적인 경우도 없다는 인간의 양면성을 그린 이 시비가 하필이면 화장실 앞에 있어 혼자 웃었다. 필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꽃보다 더 곱고 아름다운 사람꽃이 되기를 필자는 간절히 바라본다.

집승들 가운데 사람보다 더
무섭고
더러운
집승이 있을까

꽃 중에 사람꽃보다 더
곱고
아름다운 꽃이 있을까 - 한승원 「사람꽃」

우리 다음 생에는 시계가 되자
너는 발 빠른 분침으로
나는 발 느린 시침으로
한 시간마다 뜨겁게 만나자
순간을 사랑하는 숨결로
영원을 직조해 내는
우리 다음 생에는
시계가 되자 - 한승원 「시계」



장흥 군수는 부녀 작가의 기념관을 약속했다는데, 그리되면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녀문학관이 장흥 이곳 좁은 서리라 생각하니 내 가슴도 설렌다. 이 작은 시골 마을이 세계의 문학 성지가 되겠구나 싶어서다. 장소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장소를 만드는 것이구나 생각하며 필자는 문득 내 고향 하동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든다. 돌아오는 길에 섬진강의 하동 쉼터 경전식당에서의 재첩국 저녁 식사는 일품이었다. 하동이라는 고향 냄새 때문이었을까. 산뜻한 식사를 하고 9시 30분 예충 앞에서 해산했다. 진행에 심혈을 기울인 문인협회 집행부의 노력으로 차질 없이 잘 마친 문학기행이었다.

이번 문학기행의 코스를 장흥의 노벨문학의 도시로 정한 것에 찬사와 감사를 드린다. 다른 함께 했던 문벗들의 눈빛에도 따뜻한 빛이 역력하여 서로 손을 흔드는 손끝이 또 한번 가자고 말을 하는 듯 했다. 화답이라도 하듯 초이레 달빛도 눈을 찡긋한다.

글_문인선 작가 / 사진_최인숙 작가

| 예서제서



삶의 다채로움과 풍성함으로

제33회 열매전

2025. 5. 12. ~ 17. 부산시청 제1전시실

부산미술계에 부리를 내려 활동하고 있는 열매회의 33번째 전시가 5월 12부터 17일까지 부산시청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윤종철,故강홍윤, 박동명, 김용달, 노상철, 이강윤, 양철모, 김충진, 김현언, 백낙효, 여홍부, 이충길, 정용근, 이순이, 김지옥, 안태준, 권의경, 김선희 총 18명이 참여해 서양화, 한국화, 판화 등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대작 위주의 작업으로 독자적인 작품세계에 이른 이들은 부산미술계를 이을 후배들에게 창작 정신의 사표(師表)가 되고 있다.

1 윤종철_자갈치 풍경, 53.0×45.5cm

2 노상철_ still life 10, 오일파스텔, 55.0×48.5cm

3 양철모_성하(한여름의 숲), Oil on canvas, 72.7×60.6cm

4 김선희_나와 고양이, Oil on canvas, 72.7×60.6cm

5 김현언_선의 변주, 90×60×6cm

6 김용달_삼죽오 지킴이, 40×40cm



윤중철의 작품에서는 '속도감 입은 터치로 쌓아가는 색감, 형체는 있으나 묘사는 없는 고도의 표현력, 멈춰있으나 움직이는 울동성까지' 노화가의 내공을 들여다본다. 도깨비 작가로 각종 아트페어에서 주목받고 있는 김용달의 작품과 자연에서 얻은 심상을 추상으로 표현하며 세상의 푸른 빛을 재해석하는 양철모의 작품을 함께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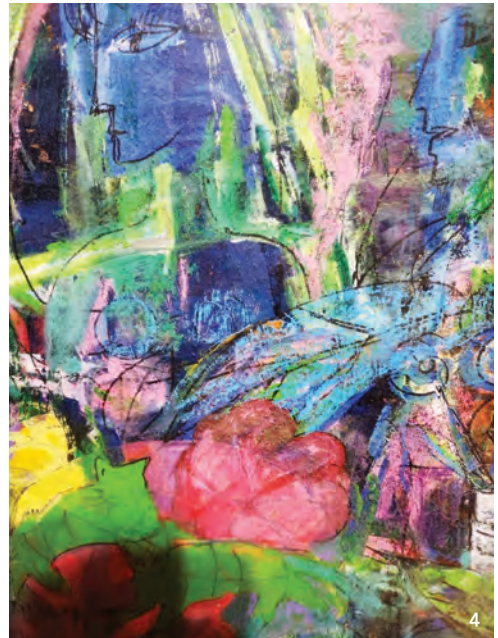
인상주의 화가 모네는 백내장으로 시력을 상실해 가면서도 평생 붓을 놓지 않고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작품에 몰두했다. 결국 그의 작품은 시대를 초월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미술의 2세대 원로작가들이 모여 1992년 창립한 열매회가 쌓아온 예술의 업적은 부산미술을 대표하며 살아있는 역사로서 존재한다. '예술가의 말년 작품에는 삶의 다채로움과 풍성함이 들어 있다고' 하듯, 각자의 작품 속에 담긴 예술혼은 모네의 작품이 그랬듯이 시대가 흐른 뒤에도 우리 곁에서 살아숨 쉴 것이다.

백낙효 회장은 "연료하시어 투병으로 힘든 생활을 하는 선배 작가들의 완쾌를 기원하며,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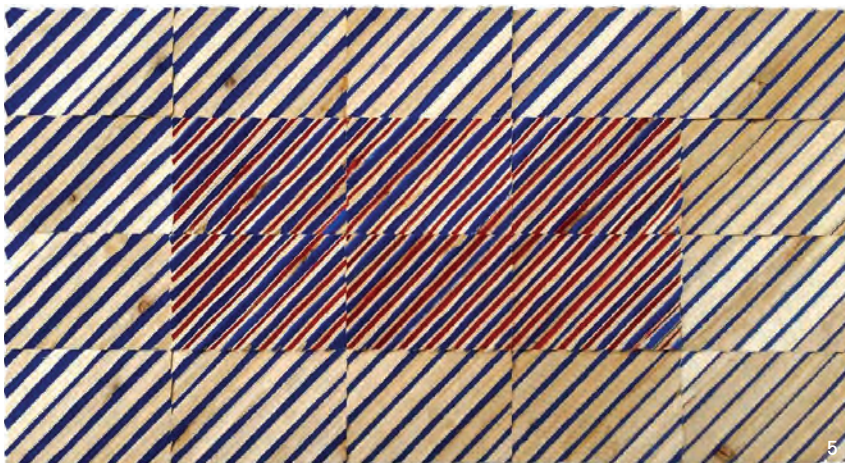
문의_010-8364-1033 / 편집실



3



4



5



6

‘제23회 문신미술상’ 김문규 조각가 선정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명예교수
-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 이탈리아 카라라 국립미술학교 졸업
- 개인전(14회) 서울, 부산, 이탈리아, 프랑스
- 단체전 및 기획전 400여 회
- 2006 쾰른국제아트페어 박영덕화랑(쾰른, 독일)
- 1997 국제조각 콩코르 "RECONTRES BREIL"(샤르트르, 프랑스) 퍼블릭상
- 2003 제 3회 국제조각 심포지움 "OS"(베르겐, 노르웨이)
- 제3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 2013 부산시 미술대전 심사위원
- 대한민국 명장 심사위원
- 2019-2024 경남 미술작품 심사위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예술 정신과 창작 활동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문신미술상’의 제23회 수상자로 김문규 조각가(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를 선정했다. 김문규는 자연과 삶에서 발견한 능동적 에너지를 조각 작품으로 구현하며, 그의 작업은 ‘생life, 빛light, 에너지energy’를 형상화한 추상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문규의 주요 작업 시리즈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생 시리즈」는 큰 덩어리에서 일부가 분리되어 새로운 덩어리가 생성되는 형상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세포 분열이나 생명의 발화처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동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빛 시리즈」는 쏟아지고 발산하는 빛의 이미지를 표현하며, 빛을 자연 만물을 생동하게 하는 에너지로 해석하여 정신적 환희를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형상화한다. 응축과 발산을 통해 존재의 탄생을 묘사한다.

「에너지 시리즈」는 단순화된 형태와 선적인 자유로운 움직임을 강조하며, 흐르고 상승하고 모여드는 에너지를 통해 굴곡과 변화를 이루며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 시리즈는 그의 작업 중 가장 높은 개념적 차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문규는 나무, 돌, 스테인리스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며, 각 재료에 내재한 형상을 표면 위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독창적인 방식을 작업한다. 초기에는 나무를 주로 사용했으나, 이탈리아 유학 시기부터 돌에 관심을 두며 석조 작업에 집중했다. 이후 금속 재료로 표현 방식을 확장하며 작업의 원숙기에 이르렀다.

김문규는 국내외에서 뛰어난 예술성과 창작력을 인정받으며 국제적인 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정교한 디테일과 높은 완성도를 바탕으로 자연성과 무한한 에너지를 담아내며, 관람자에게 깊은 미적 경험을 제공한다.

/ 편집실

김문규, 에너지2024-3, 대리석, 50x15x60cm



제64회 길동인전

길동인 작고 작가와의 동행

2025. 5. 5. ~ 11. 부산시청 제3전시실

부산화단의 전통과 맥을 이어온 작고 작가들의 예술적 발자취를 재조명하기 위해 길동인회가 '길동인 작고 작가와의 동행전'을 대규모로 마련한다. 이번 전시는 가난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창작에 매진하며 후학 양성에 힘쓴 작고 작가들의 예술혼을 기리고 지역 미술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시에는 회원 35인(구선화 김금숙 김나미 김동순 김미화 김방자 김복남 김순영 김종수 김패분 류정임 문근영 민병숙 박경옥 박정미 방은영 백청 서말본 송대호 안귀녀 안숙희 안순금 안태준 윤상태 이선애 이수희 이순자 이임주 이태훈 정경희 정수복 정현주 조규철 한숙자 허정애)과 작고 작가 22인(故 김일량 강홍운 황규용 우신출 김원갑 심재중 김봉진 김원 한상돈 문순상 박상언 박충수 김인환 차경복 이의주 조동벽 이상국 김기청 전병덕 최정근 최봉준 이의주)이 참여한다.

안태준 회장은 “작고 작가의 작품 확보 과정이 쉽지 않았으나, 소장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전시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고故 예술가에 대한 경의와 예술적 사랑이 어우러진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는 작품 수집부터 전시 기획까지 지역 미술계의 협업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자리로, 부산미술의 흐름을 조망할 기회로 주목된다.

문의_010-7532-6226 / 편집실



1 故 김원_향 2 故 최봉준_부산향 3 안태준_조각달과 고향, 30호P



제2회 수로다화전 전시전경

제2회 水路茶花展

2025. 3. 28. ~ 30. (재)일맥문화재단 오!초량

한국의 아름다운 병화 瓶花

(재)수로문화재단과 (재)일맥문화재단(이사장 최성우)의 공동 주최로 열린 '제2회 수로다화전'에는 국가무형유산 궁중채화장 황수로 장인과 [(사)수로회] 소속 작가 20명(오미숙 조현순 권기남 황순희 박호선 허예경 임연희 이순덕 최정에 박지영 박영희 이경희 홍명희 박정미 문군자 신희숙 한유진 허지영 채니권 김복남)이 참여했다.

전시는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349호로 지정된 일본식 목조 주택 '오!초량'에서 열려 마치 누군가의 정원과 집에 초대된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꽃예술과 함께 고즈넉함과 편안함을 전달했다.

/ 편집실



황수로 장인 국가무형유산 궁중채화장. 책가도 8폭 병풍을 모티브로 하여 선비의 서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책거리 작품이다. 전시 공간은 책가도의 형식을 바탕으로 관람객이 실제로 책장을 마주하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책거리 안에는 문방사우와 관련된 고서, 서화, 도자기 등 선비의 멋과 정신이 깃든 유물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각 유물은 단순한 전시품을 넘어, 조선 선비들의 삶과 철학, 품격 있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며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오미숙 수빈중앙회 회장_봄의 상징, 산기슭에 핀 진달래를 조선백자에 꽂아
'달빛에 오른 봄'을 표현한 작품이다.

2025 글로벌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부산시 문화경청 시민 워킹그룹



2025. 3. 20. 스페이스 원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5 글로벌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문화경청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문화경청'은 시민 실무단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문화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술문화인들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회의 및 현장 방문 등을 3개월간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한다. 시민워킹그룹 킥오프(Kick Off), 현장방문 간담회, 동행선언식 3개의 프로그램 중 두 개의 프로그램은 각각 스페이스 원지·부산예술회관 4층에서 진행됐다. 문화경청 프로그램은 새로운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창의적인 해법을 얻는 동시에, 일반 시민의 예술문화 관심도 향상과 문화산업 증진을 위한 전문가들의 기여도를 높이는 효과를 바라볼 수 있다.

첫 번째 문화경청 '시민워킹그룹 킥오프(Kick Off 회의)'는 3월 20일 복합문화공간 영도 스페이스 원지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조유장 부산시 문화체육국장, 오수연 부산예총회장, 예술문화계 종사자, 일반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 내용으로는 ▶내가 바라는 문화 시설 ▶문화격차 해소 방안 ▶글로벌 문화허브도시 부산의 미래 ▶창작 지원과 인력 양성 ▶민관협력 등 다섯 가지 주제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다봄'과 같은 온라인 정보 플랫폼의 시스템 개선과 활성화, 해양도시 부산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 지역 예술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2025. 4. 10. 부산예술회관 4층 회의실

두 번째 문화경청 ‘현장방문 간담회’는 4월 10일 부산예술회관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간담회는 부산의 무용분야 전문가들(국제무용제조직위 부산무용협회 부산아이디발레단)을 대상으로 지역 무용계의 현황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부산시에서는 조유장 문화체육국장과 관련 부서 인원이 참석하여 부산 무용계의 당면과제와 개선점에 대해 답변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젊은 인재를 수용할 시립무용단의 부재 ▶예술가들의 창의성을 살릴 행사와 기회의 부족 ▶인원과 행사 대비 부족한 연습 공간과 비싼 대여료 ▶타지에서 유입되는 무용 행사 관광객을 위한 부산 관광 상품 및 인프라의 부진 등이 지적됐다. 조유장 국장은 문제 해결책으로 예산 증대, 타지에서 유입되는 무용 행사 관광객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한 무용 행사지 주변 관광 여건 개선, 폐교 리모델링으로 연습 시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기존에 부산시가 글로벌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준비한 현안으로는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리모델링 추진(26년 준공 시차), 부산콘서트홀 개관(25년 6월중), 부산문화회관 리모델링(27년 12월까지), 낙동아트센터 건립(26년 상반기 개관), 부산오페라 하우스 건립(27년 개관 예정)과 같은 문화공간 확장이 있었다. 이에 더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부산시 예술문화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고하게 해준 문화경청은 부산시와 참석자 모두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며, 글로벌 문화도시 부산의 청사진을 더욱 짜임새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시민들과 지역 예술인이 직접 예술문화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며 소통한 이번 회의는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시는 오는 6월 말에 그동안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부산의 문화 비전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편집실



현대미술로 다시 만나는 피란수도 부산 **신선한 유산, 예술로 미래를 열다**

2025. 3. 25. ~ 8. 17.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지하 1층 금고미술관

광복 80주년을 맞아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을 현대 미술로 조명하는 '신선한 유산, 예술로 미래를 열다' 전시가 부산근현대역사관 금고미술관에서 진행 중이다. 한국전쟁 당시 수도 기능을 대신하며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던 부산의 장소들을 오늘날 예술가들의 시선을 통해 재해석하여 다각적인 시각에서 탐구한다. 이번 전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통해 과거와 현재, 기억과 상상을 잇는 현대미술적 시도로서 의미를 지닌다.



‘신선한 유산, 예술로 미래를 열다’는 한국전쟁 당시의 임시수도 부산을 대표하는 9개의 문화유산을 건축물형 유산 5개소와 장소형 유산 4개소로 구성해, ‘삶의 터전’, ‘국제 협력’, ‘국가와 정부의 지속성’이라는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9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1부 ‘삶의 터전, 좁은 땅 위의 생명’은 6.25 전쟁 당시 100만여 명의 실향민을 수용했던 부산의 주거지와 항만에 주목한다. 김제원, 여상희, 김서량 작가는 각각 우암동 소막 피란주거지,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 부산항 제1부두를 현대 미술 언어로 풀어냈다. 당시 피란민들은 낯선 공간에서 새로운 일상을 꾸리며 삶을 이어갔다. 작가들은 이 공간의 물리적 흔적과 함께, 그곳에 깃든 집단적 기억을 다양한 매체로 나타냈다. 설치미술, 사진, 영상, 사운드 등 각기 다른 매체로 나타내, 관람객에게 과거의 체험을 감각적으로 전달한다.

2부 ‘국제 협력, 평화를 위한 지원과 희생’에서는 유엔묘지, 하야리아 기지, 미국대사관 점 공보원 등 국제사회의 지원과 희생을 조명한다. 구지은, 김유경, 유은석 작가는 평화와 연대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나타냈다. 특히 유엔군의 희생과 지원은 오늘날 부산이 국제도시로서 발돋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배경이 되었으며, 작가들은 이를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현재에도 유효한 메시지로 표현한다.

3부 ‘피란수도, 국가와 정부의 지속성’은 전쟁 중에도 기능을 유지했던 국가 기관의 흔적을 다룬다. 김유리, 박지원, 금진 작가는 국립중앙관상대, 임시중앙청, 경무대 등 피란수도 당시의 장소들을 예술로 기록한다. 국가의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했던 장소와 당시 사람들의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재조명하는 이 섹션은, 정치적 중심이 옮겨간 도시에서 제도와 권력이 구현되는 방식을 탐색한다. 행정의 장소를 미술적으로 재해석한 시도는 피란수도의 이면을 들여다보게 한다.

9명의 작가들이 선보인 작품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복원하는 데서 나아가, 피란수도 유산을 지역적 경계를 넘어 세계적 자산으로 바라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보유한 기억의 자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확장하는 방식이다.

문의_051)607-8044 / 편집실

- 1 유은석_Checkmate & Full Basket, 혼합재료, 870×500cm, 2025
- 2 김유리_지상일기도 1951-1953, 종이에 펜 마카, 21×29.7cm, 2025
- 3 구지은_메모리작전, 혼합재료, 가변설치, 2025
- 4 여상희_비석 집_좁은 위의 삶, 신문지 압축패널, 공간 내 가변설치, 2025





제43회 부산연극제 시민평론 아카데미 우수작 I

연극하는 청년, 연극을 보는 시민

연극 <갈림길에 선 여자>는 공연 소식이 처음 올라왔을 때부터 궁금했던 작품이었다. 시놉시스와 연출의 말에서 느껴지는 결은 평소 내가 안고 있던 고민과 겹쳐 있었고, 특히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나의 위치, 그리고 성인지감수성의 차이를 체감하며 살아왔던 기억들이 이 연극을 더욱 주목하게 만들었다. “페미니즘 연극 한다고 하면 불러주지 않는다”는 문장이 과연 웃기만 할까, 아니면 현실을 찌르는 고백일까. 막상 공연을 보고 난 지금, 그 문장은 웃기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말이었다.

이야기는 배우의 꿈을 가진 신참 조연출 ‘지영’의 시점으로 시작된다. 공연장의 불을 켜고, 청소를 하고, 무대를 준비하는 지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관객은 극을 만드는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선다. 마치 무대 뒤편의 일상이 앞으로 밀려 나온 것처럼 현실과 극의 경계가 흐려지고, 조명이 켜지는 순간 무대는 전환된다. 연출의 말처럼 “거슬리기 시작한 이상,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문장은 이 연극의 구조와 정서를 관통한다.

지영은 깜빡이는 조명이 계속해서 신경 쓰인다. 거슬리고, 불편하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하고, 무대감독은 “짜구려라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라고 말한다. 조명은 계속 깜빡이고 있고,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이 장면은 단순한 극 중 상황

이 아니라, 마치 실제 연극 제작 환경을 떠올리게 만든다. 예산과 여건, 구조의 한계, 그리고 목소리를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 조명이 깜빡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깜빡거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문제를 감지하는 사람이 예민한 것으로 취급되는 구조 속에서, 그 불편함은 결국 지영 혼자만의 몫으로 남는다.

무대에는 이정표 하나만 놓여 있다. 가구도, 배경도 없이 오직 이정표 하나가 극 중 극의 무대이자 상징물로 기능한다. 이정표는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지영의 내면과 극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반영하는 장치다. 특히 가장 위에 놓인 표지판이 캐릭터의 대사에 맞춰 떨어지는 장면은, 인물이 말로 표현하지 못한 불안과 혼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감정을 더욱 선명하게 전달한다. 길이 명확하지 않다는 메시지, 어느 방향도 확신할 수 없다는 상태를 무대 위에 시적으로 그려낸 순간이었다. 공연의 마지막, 지영은 이정표를 반대로 붙이고 배우로서 무대에 선다. 갈림길에 선 존재가 마침내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 길이 옳은지 그른지 아무도 말할 수 없고, 그 책임은 온전히 자신에게 있다. 그럼에도 멈춰 있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은 말없이 큰 울림을 주었다.

연극 속 인물 간의 갈등도 무대 위에 생생하게 살아 있다. “페미니즘이 부끄럽냐”고 묻는 배우와, “페미니즘은 성공하

지 못한다”라는 연출 사이에서 지영은 갈팡질팡하며 어떤 말도 쉽게 선택하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 유일한 남자인 무대감독은 이 모든 갈등에 침묵으로 일관한다. 그는 페미니즘을 말하는 극단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들이 나누는 고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일만, 자신의 말만 한다. 그 조용함은 중립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서 가능한 무심함이었다. 현실에서도 권력은 때때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극 중 “성공하고 싶으면 연극 안 했지”라는 말은 현실을 아는 체념이자 웃픔이었다. 웃음을 유발하지만, 정곡을 찌른다. 그 말 한마디에 연극을 선택한 사람들의 희망과 회의, 페미니즘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목소리, 그리고 연극판의 현실까지 모두 압축되어 있었다.

무대 위 배우들은 고전적인 말투 대신 실제 삶에서 주고받는 언어를 사용한다. 부산 사투리와 비속어, 생활밀착형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며 무대와 현실의 거리를 무너뜨린다. 지영이 겪는 혼란은 내가 아는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들렸고, 무대 위 장면들은 공연이라기보다 연극판의 일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느껴졌다. 관객으로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감각이 강했고, 그래서 더 자주 웃었고, 더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이 작품이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는 단순히 서사의 완성도 때문이 아니다. 내가 느끼고 고민하던 것들을 너무도 익숙한 방식으로,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게 건드려 주었기 때문이다. 지영이 연출에게 묻는다. “서울 가면 성공해요?” 연출은 웃으며 대답한다. “서울은 사이즈가 다르지!” 마치 너무 당연한 걸 묻는다는 듯한 말투였다. 그 장면은 단순한 농담처럼 흘러갈 수도 있었지만, 나에게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박혔다. 그 말 한마디에 중심과 주변, 서울과 부산, 성공의 기준과 연극판의 현실까지 모두 응축되어 있었다. 나 또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스스로 ‘낙향’이라는 단어에 매달린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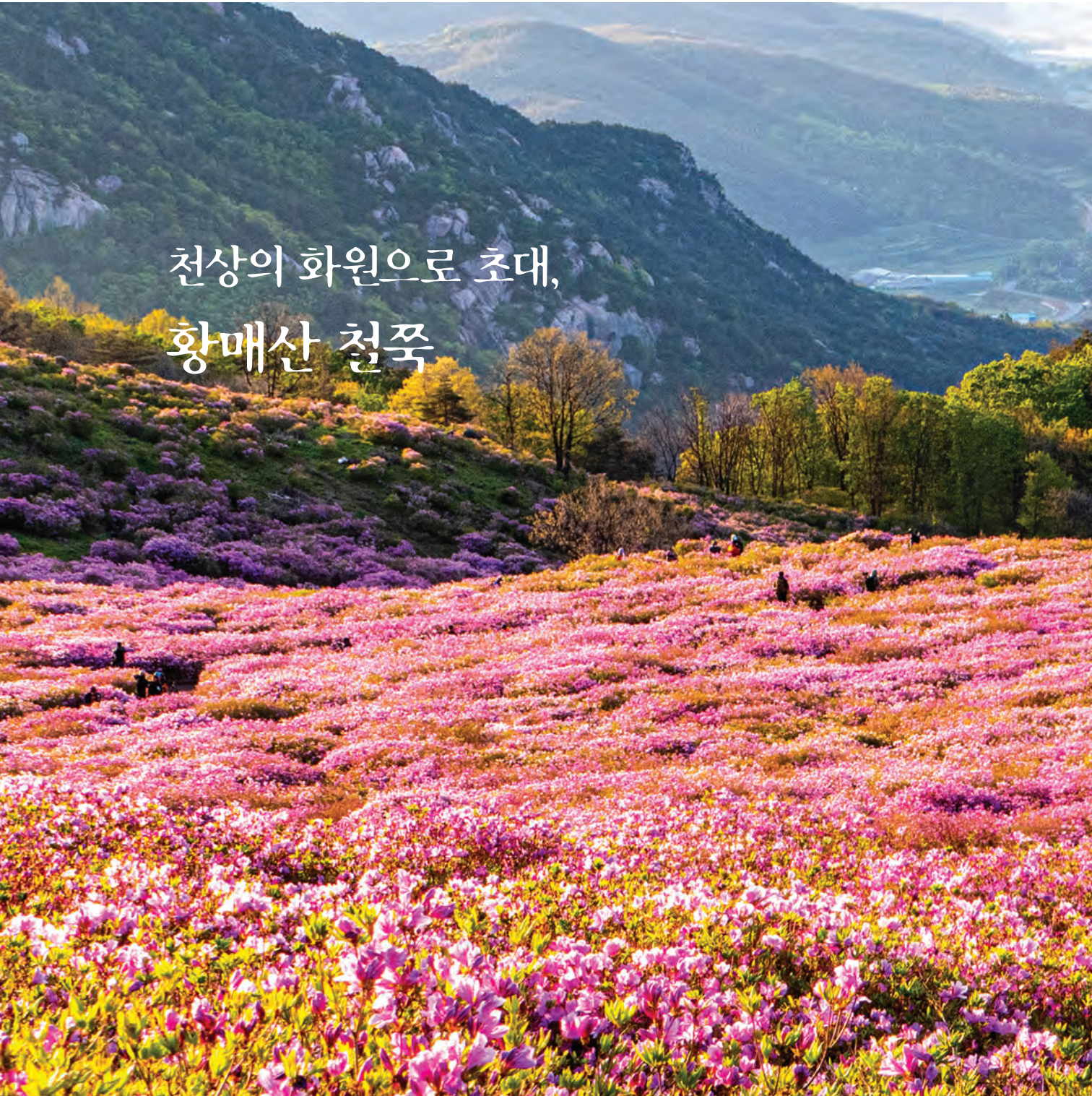
이 있다. 그러나 부산에서 지내며, 이 지역의 색과 결은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함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다만 그 고유함이 폐쇄성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질문은 계속 남는다. 이 연극은 그런 모순을 억지로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며 각자가 해석할 수 있는 여백을 남긴다.

공연 후 관객과의 대화에서 지영을 연기한 배우가 연극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였을까. 극 중 지영의 흔들림과 열망, 무대에 대한 간절함이 더욱 진심으로 다가왔고, 연극을 향한 그의 꿈과 희망이 무대 위에 그대로 투영된 듯 보였다. 또 이번 작품의 연출 김영화 님이 이전에는 지영 역할로 무대에 섰다고 들었다. 같은 인물을 연출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표현해냈는지 궁금해졌다. 한 관객이 “왜 연극을 하냐”고 묻자, 무대감독 역을 맡은 박성호 님은 “인정받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그 말은 너무도 솔직하고 뭉클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게 아이러니했다. 부산에서 연극을 하며 ‘배우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 말은 공연 속의 대사만큼이나 잔상으로 오래 남았다.

이번 부산연극제의 슬로건인 ‘청년이 연극하기 좋은 도시, 시민이 연극보기 좋은 도시’는 이 작품을 관람하며 가장 많이 떠올린 문장이었다. 지영이라는 인물이 조연출로 극을 준비하고, 끝내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지금,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의 고민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으로서 이 연극은 무척 좋았다. 질문을 남기고, 잔상을 남기며, 웃기지만 웃기지만은 않은 장면들을 남긴 이 연극은,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내가 나아가갈 방향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 고마운 시간이었다.

글_서유리 시민평론가

천상의 화원으로 초대,
황매산 철쭉









5월이면 합천 황매산에서 환상적인 철쭉축제가 열린다.
아름다운 능선마다 피어있는 철쭉꽃들은 비단 장막을 펼쳐놓은 듯
고운 입 꽃 드레스를 펼쳐놓은 듯 능선을 넘어오는 여린 바람결에도 수줍은 듯
많은 이의 가슴에는 환희의 꽃불이 머문다.
고운 사연들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곳 천상의 회원으로 당신을 초대하고 싶다.

글 사진_하선운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

너무 가벼워서 가벼웠던

데크 근방, 어제 앉았던 자리를 가늠해 본다. 계단참에 엉덩이를 걸쳤으니 두 발이 닿을 수 있는 범위는 뻘하다. 아무리 넉넉하게 추산해도 반경 1미터 내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며 발뭇을 살살이 헤집어본다. 그럼에도 도무지 흔적이 없다. 밤새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인지, 내가 장소를 헛짚고 있는 것인지.



어제 정오 무렵이었다. 산에 다녀온 남편과, 이웃 어르신, 그리고 나는 햇살 바라기를 하며 이런 저런 일상을 나누고 있었다. 잠시 커피를 내려 들어간 사이에 그것이 나타난 모양이었다. 이것 보라며, 어르신이 내민 것은 햇빛을 받아 투명한 윤기가 흐르는 솜뭉치 같은 것이었다. 스무 오라기 쯤 될까. 새끼손가락만 한 길이의 실오라기 같은 그것의 중심부에 작고 납작한 무엇이 거무스레하게 매달려 있었다. 창공을 쏟아져 내리는 낙하산 같기도 하고, 유년의 발끝에서 놀아나던 제기 같기도 했다.

“그기 머꼬?”

하얀 벌레가 잔디 위를 꼬물거리는 줄 아셨다는 어르신은 내게 그것의 정체를 물었지만, 당신이 모르는 것을 내가 어찌 알 것인가. 여섯 개의 눈이 협업을 해가며 요모조모 살폈으나 딱히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동물의 털이라기에는 너무 반지르르하고, 새의 깃털치고는 지나치게 부드럽다. 추측건대 어떤 식물의 씨앗이 아닐까 싶었다. 결국 민들레 흙씨처럼 제 종족을 널리 퍼트리기 위해 어디선가 바람 등에 업혀 모체를 떠난 것이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어르신은 바글바글 대가리를 들이미는 오만 잡풀들이 그렇게 사방으로 터를 넓혀가는 것이라며 잡초를 성토하느라 목소리를 높이셨다. 무릎이 성치 않은 까닭에 봄과 여름, 죽히 두 계절은 기다시피 풀과 사투를 벌이시는 분이려, 그 대목에서는 공감만이 정답이었다. 어르신의 고충을 아는 처지에 잡초란 무조건 응징해야 마땅한 공공의 적이라는데 어찌 이견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특이하게 생겼거나 곱다거나 예쁘다거나, 나는 입안에서 웅성거리는 긍정의 언어들만 납작 주저앉혔다. 외려, 싹수를 없애버리겠다는 제스처 삼아, 손에 쥐고 있던 그것을 바닥에 던지고 발끝으로 슬쩍 문질러버렸다. 이제 막 푸른 물이 오르고 있는 잔디 사이에서 명주실 같은 오라기들이 영키고 바스라졌다.

해가 넘어갈 무렵, 뜬금없이 그것의 정체에 궁금해졌다. 컴퓨터를 열어 이리저리 검색하다 그것을 만났다. 박주가리의 씨앗이었다. 나무든, 전봇대든, 이웃한 풀이든, 귀한 농작물이든, 박주개리는 닥치는 대로 친친 감아 오르는 풀이다. 애초부터 직립의 속성을 타고나지 못했는지, 홀로는 결코 일어서지 못한다. 닿아지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지팡이 삼아야 허리를 곧추세운다. 말하자면,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주의라 할까. 약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뿌리고 가꾸지 않아도 지천으로 번식하는 탓에 이곳에서는 발본색원해야 할 잡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작년 초가를 뒷산 초입 근방에서 박주개리꽃을 처음 보았다. 연보랏빛을 띤 작고 앙증맞은 꽃이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굳이 보려 하지 않으면 무심코 지나칠 정도로 존재감

이 없는 꽃이었다. 면을 뜬 기념으로 내 휴대폰 어느 구석에 한 컷쯤 남겨놓았던 것 같기도 하다.

오며 가며 박주가리의 생장을 넘겨다보았다. 꽃 지고 결실의 계절이 되자 새끼 오이만 한 씨주머니가 여럿 매달렸다. 꽃과는 영 언밸런스한 크기며 모양이라 금방 눈에 띄었다. 아마도 그 속에 씨앗이 여물어가고 있었던 모양이다. 제 몸을 열어 씨앗을 모두 날려 보내고 말라가는 주머니가 흡사 바가지 같다고 하여 박주가리라는 이름이 붙은 거라니.

누군가가 접사를 해놓은 박주가리 씨앗 하나가 모니터를 환하게 밝혔다. 낮에 우리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그것의 모양 그대로였다. 거무스레한 바탕에 띄워놓은 씨앗은 실물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비상'이라는 이름표를 단 사진은, 씨앗에서 거미줄처럼 가는 잔털이 수북하게 뻗어 나와 사방으로 흩어지는 순간을 포착해 놓은 것이었다. 하얀 천을 흘뿌리는 살풀이의 춤사위 같았다가, 동심을 그득 실은 애드벌룬 같았다가. 캄캄한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축제가 그들을 본떠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문득 어디선가 읽었던 글이 생각났다.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나무보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꽃을 피우는 나무의 수명이 더 길다고. 제 가진 것을 죄 쏟아부어 한 계절의 만개를 꾀하기보다는 내일을 내다보며 스스로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해 여력을 비축해 놓기 때문이라던가. 아마도 박주가리는 잠시 황홀한 꽃보다는 옹골찬 씨로 훗날을 기약하는 식물인가 보았다.

종족의 번식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날아오를 순간을 기다렸을 그것들. 떨어내고 깎아내고 내려놓으며 공기보다 가벼워질 그 숭엄한 때를 양망했을 그들의 시간을 생각하니 너무 가볍게 놀렸던 내 발이 미안해졌다. 무릇 씨란 싹 틔우고 뿌리를 내려 비로소 한 생을 구가하게 될 어느 생명체의 내일이 축약된 것이 아니라. 설사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나 추구하는 바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자기만의 우주를 건설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최소한 그 길고도 지난했을 시간을 단순히 뭉개버린 장본인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어스름이 깔리는 시각. 잔디마당에 쪼그리고 앉았다. 딱히 어떤 의도 같은 것은 없었다. 그저 그것의 무사함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나 아무리 실눈을 떠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남편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그것을 찾는다고 했더니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시큰둥 지나쳐 버리는 것이었다. 결국 짙어지는 어둠 때문에 포기하고 들어와 밤을 넘겼다.

다시 아침, 다시 찾기를 시작해 보는 참이다. 남편은 굳이 잔디밭을 뒤지고 앉았느냐는 눈빛으로 어제처럼 나를 훑고 지나친다. 하긴, 박주가리씨를 구하려 들자면, 돌아가신 옆집 어르신 댁 화단



에도 한 포기가 있고, 뒷산 언저리만 가도 지천일 게다. 그러나 나는 박주가리 씨앗이 아니라 어제 내 발밑에서 꼬꾸라졌던 그것이 필요할 뿐이었다.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그것이 있던 곳에 그것은 없다. 아마도 부실하나마 스스로를 추스른 채 어딘가로 옮겨간 모양이다. 아니, 그랬다고 믿고 싶다. 다행히 좀 더 안전한 어딘가에 몸을 풀었다면, 여름이 완연해지는 날 박주가리 한 포기가 뜬 금없는 해후를 청해올 것이라고 희망의 주문을 걸어둔다.

그때까지는 이따금씩 이라도 어제의 죄과를 떠올려야겠다. 그리하여 한없이 가볍고 연약하던 그것, 아니, 그간 내 오만과 착각에 무너졌던 세상의 수많은 박주가리의 타박을 달게 받는 심정으로 너무 가벼웠던 그 순간을 두고두고 반성해야 할 일이다.

글_문경희 수필가

건축과 예술,
교육과 행정을 잇다

신임 감사 **윤종국**

- 현)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김해시 기본경관계획 공동연구원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 부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위원
- 교육부장관상 수상

윤종국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오수연, 이하 부산예총) 신임 감사로 선출됐다. 14년째 건축 교육에 몸담아온 그는, 7년간 부산건축가회(회장 김두진)에서 기획이사, 부회장, 학술연구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부산예총 회장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성을 인정받았고,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감사직에 추천받아 출마해 당선됐다.

부산건축가회와 인연의 시작은?

건축가회가 추구하는 비영리적 봉사 정신은 건축의 예술성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다. 그는 실무와 학문을 아우르는 경험 속에서 건축의 공공성과 예술성을 조율해 온

인물이다. 창작과 예술에 기반한 비영리단체인 건축가회를 통해 지역 건축의 가치를 조명하고 예술적 소통을 지향해 왔다. 그는 건축가회의 영리를 우선하지 않는 순수성과 봉사 정신을 통해 건축이 예술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한 점이 그를 건축가회의 일원으로 만들었다.

감사직의 역할이란?

감사는 갈등의 중재자이자 균형 잡힌 소통을 주도하는 자이다. 부산예총은 다양한 예술 장르가 모인 조직인 만큼, 각각의 목소리가 평등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견만 주요하게 다루지는 구조는 지양돼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감사의 역할 역시 단순한 감시자나 비판자에 그치지 않고, 내부 갈등이나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통 기반의 조정자이자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이전 선거관리위원 경험을 통해 투명한 절차와 양방향 소통의 중요성을 체감했고, 이를 감사직 수행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의 실질적인 역할은 업무의 정당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개선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가로서 예술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건축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사익의 균형은 예술 행정의 지향점이 될 수 있다. 윤종국 감사의 예술가로서의 시선은 감성과 공동체성에 닿아 있다. 기능과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사회 속에서 예술은 인간의 내면을 지키는 감성의 영역으로서 더욱 중요해진다고 봤다.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예술의 감성적 역할은 상대적으로 확대된다”고 말하며, 예술은 생활 속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 역시 예술의 한 분야로서 시민과 가장 밀접한 영역 중 하나이기에, 사적 자본과 공공성의 균형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과도한 사익이 시민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의 자유를 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이러한 균형 감각은 건축뿐 아니라 예술 행정 전반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자로서 어떠한 지도 철학이 있는지?

‘실천’이 실무 역량과 창의성을 동시에 배가시킨다. 그의 교육자로서의 철학은 ‘실천성’에 있다. 동명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의 작품을 국내외 공모전에 출품시키며 실무 역량과 창의성을 함께 배양해 왔다. 그 결과 다수 학생이 수상하며 경쟁력을 입증했고, 국내 주요 건축설계 사무소에도 진출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건축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해온 노력이 있다면?

예술 장르와 지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소통과 실천은 예술 자체를 복합적으로 발전시킨다. 윤종국 감사는 장르 간 융합과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부산건축도시사 진전’을 개최하며 부산사진작가협회(회장 강종관)와 협력하고, 여러 예술인과 공동 기획한 건축 행사, 타 지역 및 해외 건축 협회와의 교류 등 예술과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부산예총이 가진 종합예술단체로서의 장점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대의 예술인을 이야기 한다면?

예술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감성의 영역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예술인을 ‘감성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로 정의하며, 거대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예술은 내면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는 힘이 된다고 믿고 있었다. 특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는 이들이야말로 예술 생태계의 든든한 기반이자 미래의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예술문화는 단순한 장식 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와 안정, 미래를 위한 기반”이라며, “공정성과 감성의 균형 속에서 부산예총이 시민과 함께 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교육자, 예술가, 부산예총 감사. 이 모든 것이 윤종국 감사를 칭하는 말이다. 그는 많은 직책과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는 법이 없었다. 얼핏 보면 연관 없어 보이는 별개의 역할도 퇴직된 경험을 통해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사람이다. 실무와 예술, 행정과 교육을 넘나드는 그의 행보는 하나의 거대한 작품과도 같이 느껴진다. 앞으로 더욱 완성돼 갈 그의 작품 같은 여정을 응원해 본다.

글 인물사진 박준영

극을 통한 시대 인간관계 속 내러티브¹⁾의 철학적 묘사

연출가 **이기호**



-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 연극영화학부 교수
- 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이사
- 극단 노릇바치 상임연출
- 부산광역시교육청 자문위원 역임
- 한국대학연극학과교수협의회,
한국연극교육학회 부회장 역임

관계에 대한 사색으로 시작된 연극

그는 어린 시절 부친의 언어장애로 인한 소통 부재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과 소통에 열악함을 느꼈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혼자만의 사색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문화 활동에 열중하게 된다. 첫 연극의 경험은 고등학교 시절 경주 불교 학생회의 야유회에서 진행했던 즉흥연기로부터 시작됐다. 우연으로 시작된 경험은 이전에 가졌던 생각과 다른 새로운 감정을 일으키고, 연극을 통해 사회와 관계에 대한 연결과 소통의 의미를 발견한다. 이후 중앙대학교 연극학과에 진학하면서 그의 본격적인 연극 인생이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의 시기에 가정 상황으로 인한 관계에 대한 결핍이 그에게 문화와 인간관계에 대한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기에 연극 무대에서 본인을 온전히 바라봐주는 관객들과의 시선·교감을 통한 새로운 감정들이 생각의 전환점을 주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대학교 시절 연기와 연출을 병행하다 연극을 표현하는 과정이나 해석의 차이에 의해 결론적으로 극을 온전히 표현함에 중요성을 느낀다. 이후 연출 분야로 전환을 다짐하고, 인간의 심리에서 나온 행태적 분석과 형식적 부분에서 이를 은유적으로 그 만의 언어로 재창조한다. 그는 일반적으로 단순히 연극의 이야기를 극화해서 무대 위 관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연극이라는 정의를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와 인간의 소통적 실증과 개념을 가장 명징하게 표현하는 공연 예술의 통로 중 하나’로 생각하는 까닭이다.

시대 소통의 부재를 일깨우는 학문적 연출가

이기호는 연극에서 본인만의 연출의 강점이자 특징으로 형식적 측면에서 미장센(Mise-en-Scène²⁾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일종의 은유적 예술의 결정체로 보고 있다. 사건의 모든 외적인 행동의 원인 및 결과적인 부분을 분석하고, 이

를 무대 위에서 재해석하고 논문으로 다시 발표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과정의 순환은 공연이 단순히 극을 해석하며 연출하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경험을 통한 사회적 주제를 탐구하는 심리와 철학적 측면의 연구자 자세에 기인한 모습들이다. 연극에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무의식의 개념을 프로이트, 라캉, 융 등 철학자의 논리에 투영하고 이를 끊임 없이 분석한다는 그의 모습에서 사뭇 흥분감이 엿 보였다.

그는 무의식 영역의 중요성을 얘기하며 예를 들어 나무 표면에 보이지 않는 땅, 밑의 뿌리를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은 무의식과 관계적 측면에서 본인이 시사하는 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짧은 호흡의 연출보다는 긴 호흡의 깊이를 추구하는 그의 고집은 연극은 현재를 살아내고 표현하는 것이며, 개인적인 경험과 가치관의 반영을 뜻한다고 전한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물로 최근 헨리크 입센 작품 〈바다에서 온 여인〉을 연출하고 제 19회 부산 연극상 '올해의 연극인상' 연출상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연극의 주제는 선과 악 또는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갈등이 전체 맥락상 골격으로 형성된다. 이전까지 여러 연극의 연출을 진행하였던 그였지만, 특히 안톤 체홉의 작품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며, 연결과 소통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안톤 체홉의 작품 주제는 인간의 욕망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연결에 초점을 맞춘다.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사는 존재이며, 서로 간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

을 메시지로 전달한다. 현시대 인간관계 속 소통의 단절 이면을 소통의 중요성으로 일깨우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인간이란 글자를 사용할 때 사람 인자 자에다가 사이 간자 자를 써요. 인간을 왜 사람 인과 사이 간을 합쳐서 인간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즉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죠.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연결되어 있을 때 자신의 주체 존재를 느끼죠. 이걸 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술 연극입니다”

공공예술 영역에 대한 예술적 표현 확장의 제한

이전 극단 대표로도 활동했던 그가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건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의 강렬한 에너지가 기억에 남는다고 전하며, 연극을 만드는 일상 속 일련의 과정에서도 극적인 순간들이 많음을 회자한다. 그는 최근 사회 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간관계 속 자살 문제에 집중하고, 이를 주제로 다룬 작품을 기획하고 있다. 사회적 주제까지 연계적 맥락에서 헨리크 입센의 「헤다 가블레르 Hedda Gabler」의 골격을 기반으로 이를 해석하고 분석 중인데, 연극을 단순히 공연하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닌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투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예술 영역까지의 확대는 그의 예술적 표현의 확장성 측면에서 기대되는 점이다. 이기호는 기존의 정답을 답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만의 방식으로 독자적인 방향을 연구 개척하며 부산의 연극계를 선도하고 있다. 연출가로서 앞으로 연극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와 현시대에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인간관계 소통의 중요성과 관련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글 인물사진_백근영



안톤 체홉의 연극 〈세 자매〉 공연 연출 실현 모습

- 1 정해진 시공간 내에서 인과 관계로 이어지는 허구 또는 실제 사건들의 연속
- 2 무대 위에서 등장인물의 배치나 역할, 무대 장치, 조명 따위에 관한 총체적인 계획



- 개인전 10회
- 국전 입선 3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1회(79~85 한국미협)
- 대한민국미술인상 원로작가상(18 한국미협)
- 부산미술대전, 목우미술대전, 대한민국미술대전, 국제종합예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현) 대한민국미술대전초대작가, 부산미술협회, (사)목우회, (사)국전작가협회, 길동인, 신우회, 한일교류회, 사생회, 환경미협, 기독교미협, 일요화가회, 아우라회, 작은그림전, (사)한국창조미술회, G-art, 국제종합예술진흥회, 부산북구미술협회, 부산미술원로작가회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풍경의 서사 화백 송대호

내 어린 시절, 마을의 골목길을 떠올리게 하는 송대호의 그림은 노란빛으로 가득하다. 골목 어귀에 거목으로 자리한 은행나무는 가을이 되면 날개를 활짝 펼친 나비 같은 단풍잎을 살랑이는 가을바람에 떨거 골목길 지천에 노란 카펫을 깔아놓았다. 오래전 기억, 황금빛 풍경으로 물들어 있는 유년 시절의 추억이 그의 그림에 고스란히 담겨 나의 마음속으로 밀려든다.

우리는 어디론가 늘 여행을 떠나면서도 모두 집으로 돌아온다. 저마다의 기억들이 켜켜이 쌓여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고유한 상자가 되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림과 정든 그곳으로 회귀하게 만든다. 세월이 지워지고 희미해져 가는 고향이 송대호의 그림 곳곳에 남아 그리움의 여정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한다.

1945년 송대호는 경남 진해에서 출생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벚꽃장에서 그린 두 그루의 벚나무가 교실 뒤편에 걸린 그날의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아름다운 봄날의 기억이 만개한 벚꽃처럼 그의 마음에 흐드러져 80년 세월 동안 빛을 놓지 않았다.

학창시절에는 늘 그림을 그리기 위해 고심했지만, 스승이 없었다. 고3이 되던 해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한 김청정(조각가, 신라대학교 교수) 선생이 미술교사로 부임하면서 다시 그림을 향한 애정을 증폭시켰다. 이후 송대호는 미술과목이 있는 부산교육대학(부산사범대학)에 진학해 故 조동벽(1920~1978)을 만나 처음으로 미술교육을 접했다.

1964년 조동벽은 일본대학 예술학부 미술과를 졸업(1941년)하고 귀향해 온 인물이다. 그가 머물렀던 1930년대의 일본은 유럽의 새로운 예술사조를 한꺼번에 받아들여, 추상미술과 초현실주의 등의 아방가르드 예술이 유행했다. 조동벽은 '서양화법을 익혀 신일본화 운동의 하나인 독립미술협회의 공모전에서 두 차례 입선하며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나이프를 이용해 마티에르를 강조한 추상과 정물, 자신이 기억하는 농촌 풍경 등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이에 송 화백은 조동벽 선생의 어깨너머로 봤던 그 정서가 기억에 남아 자신의 작품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며 소회를 밝혔다. 송대호의 작품에서는 1986년에 제작한 「환상」 정물화에서 나이프로 쌓아 올린 마티에르 기법이 등장하기 시작해, 200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모든 작품에서 풍성한 질감 표현이 완성도 있게 나타난다.

1973년 송대호는 중등교사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해 중학교 미술교사로 발령받았다. 그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걸으며 [길동인회], [신우회] 등의 미술단체전을 통해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서구의 여러 미술 경향이 물밀듯이 몰려와 추상화가 화단을 주도하던 시기에도 구상회화를 내세우며 구상화의 전통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길동인회와 신우회 등 많은 미술단체가 사실주의에 입각한 작품 발표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부산교육대학교 출신의 예술가들이 모여 창립한 길동인회는 산과 바다를 담은 풍경화나 정물화 등 전통적인 형식을 중심으로 작품을 선보였고, 신우회 또한 극사실에서 구상까지 전통적인 화법에 치중했다. 여기에 가담한 송대호의 작품 경향도 이들의 작품 분위기의 경도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주로 이루어졌다. 1973년 제작한 「송도의 추억」은 송도의 바닷가 지형을 기록한 인상주의풍의 풍경화이다. 구상회화가 도달할 수 있는 추상적 분위기가 살아있는 작품으로 크고 거친 터치로 형태를 단순화하여 대상을 변형시

키고 푸른 색상의 다양한 붓놀림을 통해 긴밀히 연결해 놓음으로써 화면 내에서 색채 융화가 돋보인다.

1979년 송대호는 범어사 대웅전 앞에 비치된 청동북(靑銅金鼓)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 「천년의 소리」로 국전(國展)에 입선했다. 대웅전 목조건축물의 나뭇결과 돌 기단, 북의 금속 재질이 조화를 이루며 고색창연한 기품을 잘 나타낸 작품이다. 조형적으로 분석해 보면, 둥근 북이 화면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세월의 깊이감을 더한 색채가 시공간의 분위기를 탁월하게 연출하고 있다. 사실주의를 기조로 한 정확한 묘사력과 성실함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으로, 이후 제29회, 제30회 국전에 입선하며 작가로서의 기반을 탄탄히 마련해 나갔다.

1985년 「인공+자연적」은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특선한 작품으로 현재 부산시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미남로 타리 근처의 벽돌상회에서 마주한 풍경은 그의 작품으로 들어와 예술적 구조물로 완성됐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대한민국미술전람회와 대한민국미술대전의 구상부문에는 벽, 벽돌, 돛자리 등 주변 경물을 소재로 한 하이퍼리얼리즘적 묘사가 유행이었으며, 송대호도 구상의 흐름을 이어가는 대표적 작가로 구분된다. 이 작품은 '오른쪽에서 비치는 빛으로 가지런히 쌓인 벽돌과 무너지고 부서진 벽돌이 대비를 이루며, 정확한 데생과 안정적인 명암대비, 다채로운 색의 변주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1994년에는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제2회 개인전'을 열었다. 1987년 태화쇼핑 7층에 자리한 원앙미술관에서 열었던 첫 개인전이 수상 작품을 위주로 한 테크닉적인 측면의 우수성을 드러냈다면, 이때부터는 작가로서의 방향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전시 서문에는 '나의 감성이 그림에 녹아 자연과 일치하는 세계를 꿈꾸며... (중략)... 짙은 그림을

남향의 아침 _ Oil on canvas, 10F, 2016



의 세계로 발길을 주소서'라는 내용이 적혀있어, 그가 추구하는 작품세계가 '자연의 그리움'에 가닿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향수」 「설악」 「언덕길」 「송정의 여름」 「을속도의 추억」 「휴선(休船)」에서는 그가 머물렀던 곳곳의 정서가 부드러운 붓질로 이뤄낸 감각적인 색채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

1998년 3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부산미술재조명전-집단활동으로 본 부산미술의 정체성'에 참여했다. 이 전시는 구상과 추상, 형상미술과 설치, 조각, 초현실주의 작품까지 부산미술을 총망라한 대규모 형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송대호는 날이 저물어가는 어스레한 빛의 느낌을 잘 담아낸 「모색(暮色)」을 출품했다. 이 작품의 배경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마을의 풍경으로, 수확이 끝난 듯한 농촌 풍경의 모습을 노을이 지는 빛의 인상을 강조해 서정적으로 표현했다. 1998년 9월에 진행한 「구상21」의 작가탐방에서는 「모색」을 대표작으로 함께 실으며 '농익은 황색조를 바탕으로 햇빛의 뉘앙스, 청량

한 대기의 미(美)가 배어있는 은밀한 삶의 밀어를 느끼게 하고 황량한 자연에 남겨져 있는 농가나 환상 속의 정물들은 인간의 숨결을 느끼게 한다'고 설명했다.

2000년에 제작한 작품을 중심으로 들여다보면 그의 작업이 더 농밀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기법적으로 나이프나 붓으로 쌓아 올린 마티에르 기법이 두껍게 나타나 화면을 풍성하게 만든다. 「기원(祈願)」(2000)은 바위에 돌을새김한 마애불(磨崖佛)의 묘사가 빛의 인상과 함께 질감 표현이 압도적인 작품이다. 화면 하단에 농

인 사발과 작은 과일 몇 개가 색의 대비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며 작가가 얼마나 치밀하게 색을 사용했는지 면밀하게 보여준다. 그는 작품 구상에 있어, 특히 색을 심도 깊게 연구했는데, 이러한 특징은 '빛의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빛의 전율이 감동으로 승화되는 작품세계 구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념(念)」 「그리움」 「기다림」의 작품들은 마치 '한국의 바니타스 정물화'를 연상시킨다. 주로 깨진 사발, 오래된 토기, 램프, 목기러기, 나뭇가지와 열매 등의 자연물이다. 그는 골동 상점을 드나들며 구입했거나 오래전부터 집에 있었던 사물들을 선택적으로 화면에 배치해 사람의 손을 거쳐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정물화를 그린다. 17세기 네덜란드 정물화에 담긴 '허무와 덧없음'은 송대호의 작품을 통해 '소중함과 그리움'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2007년 7월 9일 정년 퇴임을 기념하며 부산시청 제1전시실에서 '제4회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 전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비천무 시리즈'이다. 풍경화를 위주로 작업을 해왔던 송 화백은 독자적인 작품세계 구축을 위해 소재의 변화를 모색했다. 주로 고분벽화나 범종의 주물, 사찰 전각에 표현된 비천상은 세월이 흘러 안료가 산화되고 퇴색된 장면으로 나타나, 표피적인 묘사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층에 관한 연구와 자신만의 서정성 표현을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소재였다. 「찬·비천讚·飛天」(2000)과 「비천무飛天舞」(2003)는 파란 배경에 허공을 유영하는 듯한 형상으로 조동벽의 「비무선아飛舞仙兒」(1955)와 닮아있다.

2023년에는 8년 만에 '제9회 개인전'을 열고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였다. 풍경과 꽃, 토속적이고 고전적인 소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물의 구상具象과 화면을 해체한 추상抽象이 배경으로 혼재하면서 작품 형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대표작 「축일祝日」은 반달이 위에 전통 혼례에서 사용하던 반진고리함과 목기러기 한 쌍이 빨간 보자기에 싸여 있고, 벽면에는 화려한 색의 조각보가 공간감을 부여해 그 속으로 나비들이 날아든다. 행복을 염원하고 희망을 더 하는 꿈같은 풍경이야말로 작가가 지나간 여정 끝에 마주한 심상의 표현이다.

2023년 부산미술원로작가회에서는 한국 민화의 호랑이를 소재로 금박 작업을 한 「전설」이 등장한다. 송 화백은 작가노트에서 '화풍의 변화를 시도함은 창작 의욕의 발현이라 생각한다'며 '금박을 도입하여 평면적이고 장식적인 화면을 시도하였다'고 밝혔다. 소재뿐만 아니라 작품 형식을 다각도로 시도하며 끊임없이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완성하려 했던 그의 노력이 작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송대호는 사실주의 계보를 잇는 작가다. '그리 고자 하는 대상이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 그 대상은 자연과는 다른 자연이고, 그런 인간 심경

의 작용이 창작의 본능이 된다'는 작가 오지호(1905~1982)의 말처럼, 그가 평생에 걸쳐 천착해 온 풍경화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지 않고 그의 심상에 남은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

송 화백은 아카데미 교육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그림 세계를 개척해 왔다. 그의 작업실 벽면에는 작품을 위해 만든 사진 파일이 뽀뽀하게 꽂혀있다. 파일 제목은 바다와 파도, 낙동강과 갈대, 소나무, 새, 나비, 송정과 부산항까지 그의 시선에 포착된 다양한 자연들이다. 그는 '작업의 화두는 늘 아름다움의 표현이었으며, 그 아름다움의 대상은 항상 자연이었다'고 고백한다. '예술은 반드시 아름다워야 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 추麗의 미학을 앞세운 현대미술의 논리는 그에게 성립되지 않았다. 시대를 관통하며 보편타당한 아름다움을 그리는 자연에서 찾아낸 송대호는 자연과 빛의 작용에 의한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감성으로 전이시켜 소박하면서도 서정적인 한국의 풍경을 완성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 사라져가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다'는 구절이 그의 작품 곁을 맴돈다.

글 인물사진_정혜주

청산별곡_Oil on canvas, 10F, 2024



안개비

손무경

너무 커서

허전한

머루나무 사랑같은

생각도

그 애들도

스스로

여닫는것

닫아도

넘치지 않는

가슴으로

짓는다

작가노트 | 현대문명 속에 질주하는 진보의 속도와 그에 내재된 어두운 그림자, 작고 가벼운 것들에 대한 욕망이다.

글_손무경 (사)부산문인협회 20대 부회장, 부산시조시인협회 회원, (사)부산여성문학인협회 회원

RE: VIEW

- 무용** 20년 만에 발레 부문 대상, 부산아이디발레단
제34회 부산무용제 _ 함수경
- 미술** 피란수도 부산에서 피어난 예술과 기록들
『한국 근현대 화가들의 부산시대』 _ 박진희
- 연극** 진정 '시민이 연극보기 좋은 도시'를 위하여 _ 최용혁
- 미술** 갤러리 인터페이스 기획전
심준섭 '인터-넥서스' *INTER-NEXUS* _ 백근영

20년 만에 발레 부문 대상, 부산아이디발레단

제34회 부산무용제

글_함수경 잉스문화예술교육연구소

2025년 '제34회 부산무용제'가 4월 12일(토)과 13일(일) 양 일간에 걸쳐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렸다. 올해 부산 무용제는 발레 1팀(부산아이디발레단), 한국무용 1팀(아트프로젝트 춤is), 현대무용 1팀(현대무용단 자유)으로, 총 3개 팀이 경연했다. 심사는 이태상(심사위원장) 신라대 교수, 배귀영 창원대 교수, 박이표 울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한효림 안무가, 4명이 참여했다. 식전 행사로 대극장 야외 광장에서 개최된 '제9회 부산 무용생활문화예술제 시민춤한마당'은 지역 무용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했는데 이는 다양한 무용 동호회 및 생활 문화 예술 단체 간의 교류를 부산무용제와 함께함으로써, 지역 무용 생태계의 연대를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모습이었다. 특히, 식전 행사의 시작 전과 후 굿은 날씨에도 부산무용협회 윤정미 이사의 지도로 진행된 시민대동춤은 하나의 공동체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무용 향유층의 다변화를 촉진하고, 참여 주체 중심의 무용 문화 확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부산무용제는 수준 높은 공연뿐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통해 무용과 시민의 거리를 좁히고, 무용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부산무용제는 1992년 문화관광부 선정 춤의 해부터 무용인의 창작 의욕 고취와 지역 무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무용제가 개최됨에 따라 제1회 부산무용제

(7월)가 지역 경선의 형태로 시작¹⁾되었다. 경연 현장에서 배포되는 팸플릿은 무대 위에 올라가는 단체의 소개나 작품 내용, 안무 의도 및 출연진을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맨 뒤쪽에 있는 부산무용제 34년의 기록으로 수많은 무용가의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값진 기록임을 볼 수 있었다. 부산무용제 연혁에 (사)대한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 1963년 창립이라는 숫자와 그동안의 수상자 및 작품명은 부산 무용계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온 깊이와 저력을 느끼게 했으며 무용협회에 헌신하는 분들의 열정이 이어져 온 궤적을 보여주는 듯했다.

올해도 부산시와 대한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회장 남선주) 주관으로 수많은 무용인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경연이 펼쳐졌다. 매년 전국무용제 출전권을 향한 치열한 예선은 부산 지역 안무가들의 창작 열정을 고취하고,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과 숙련된 무용수들의 기량을 심도 있게 평가하는 중요한 시간이 된다. 경연의 첫 번째 작품은 이주호(부산아이디발레단 대표) 안무의 <철근 위의 백조>이다. 자연과 인간의 갈등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며 백조의 호수 서사를 차용하되 환경파괴와 자연의 소멸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했다. 부산아이디발레단 대표 이주호는 33회 부산무용제에서 <에센셜>로 우수상을 받았고 올해 재도전을 통해 대상과 안무상을 수상했다. 무용단의 여자 주역인 김혜지는 우수 여자 무용인상을 수상했다.

부산아이디발레단
〈철근 위의 백조〉



〈철근 위의 백조〉에서 이주호 안무자와 출연 무용수들의 몸에서 보이는 탄탄하면서 기본기가 잘 갖추어진 가늘고 훈련된 아름다운 선은 작품 전체에서 빛났으며, 세공하듯이 만든 근육은 완전무결하기 위해 긴 시간 노력한 무용수가 선사하는 감동의 깊이를 더했다. 앞으로 전국무용제에서 무용수의 숙련된 기량과 예술미가 빛나는 순간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서사 구조와 무대 연출의 유기적인 통합성이 필수적이다. 안무 의도가 있겠으나 작품 도입이나 장면 전환Transition에서 음악이 홀로 압전에서 작품을 설명하거나 영상, 조명의 유기적인 조화가 미흡할 경우, 무용수의 움직임이 단절되거나 흐름이 방해받아 작품의 몰입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조명 디자인에 있어 무용수의 신체 라인과 움직임의 동선을 섬세하게 포착하여 입체감을 살리고, 무용수의 표정과 감정 표현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독특한 무용수의 움직임이나 흐름Flow을 놓치지 않는 것은 관객이 무용수의 움직임에 온전히 몰입하고, 작품이 전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상 수상작의 총평에서 “전국무용제를 대비한 작품의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작품들에 비해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밀도 있는 구성과 주제의 보편성 해석의 방향성, 무용수들의 앙상블은 타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 연출의 전달, 리듬과 장면의 변화, 무대 미술과 조명 등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의 정교한 전환이 추가로 요구된다. 작품의 구조적 긴장감과 서사적 명확성을 더욱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두 번째는 작품은 김지혜(아트프로젝트 춤is 대표)안무의 〈시대 예보: 호명사회〉로 익명으로 태어난 개인이 혼란과 불안을 겪으며 새로운 연대를 찾아 마침내 자신만의 꽃을 피우는 여정을 아름답게 보여준다. 남자 주역 이제형이 나무 악기 박槌를 가지고 존재를 호명하면 여자 무용수들이 절제된 동작과 함께 무대 공간을 가르거나 무용수를 감싸는

아트프로젝트 춤is (시대에보: 호명사회)



조명 안에서 밀도 있게 악사들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춤춘다. 작품 중반 고수의 리듬에 맞춰 소품을 활용한 빛의 움직임이 소리를 시각화하며 작품 내용에 더욱 깊숙이 다가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형태의 명확성이나 공간 변주, 새로운 결을 탐색하는 효과를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는데 조금 더 구체화하였더라면 작품의 주제 의식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지혜 안무가의 섬세한 표현은 작품 흐름을 따라가는 몰입도가 상당했는데 특히 #3 결연과 #4 만개에서 보여준 군무의 통일감^{Unison}은 거대한 유기체처럼 느껴지는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조명 아래에 떨어지는 흩어진 조각이 각자의 꽃으로 피워지고 내리며 시각적인 웅장함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 다만 통일감의 반복이 지속되어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주제 의식이 경연이라는 과정에 맞게 명확하게 드러내기 어려웠다.

경연의 마지막 작품은 하주은(현대무용단 자유)안무의 <Obscured silence>로 이 작품은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출연

한 염승훈은 우수 남자 무용인상을 수상했다. 하주은 안무자에게 침묵은 단순한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며, 침묵의 힘을 통해 기존에 묻혔던 질문과 새로운 탐색들이 움직임으로 발현되어 소통과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고 안무 의도를 밝혔다. 무대에 하나의 사그락거림이 사라질 때 고요한 몸이 등장하고 물방울 소리와 함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이 몸 주변의 키니스피어^{Kinesphere}에서 움직임의 범위와 방향, 신체의 위치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출연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공간 범위를 정의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었는데 무용수들 서로 관계 설정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흥미로운 방식은 침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여, 무용수 개인의 내면적 움직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확장되는지를 섬세하게 묘사되었다. 침묵이 내포한 다층적인 의미를 탐색하며, 고요함 속에서 더욱 증폭되는 감정과 에너지의 파동을 시각적으로 구현해 냈다. 이는 관객에게 침묵의 이면에 존재하는 역동성을 느끼게 하며, 새로운 차원의 소통적 경험을 선사하였다. 무엇보다



염승훈이 보여주는 움직임의 질감과 그 만의 절제와 자유로운 몸의 변화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멈추거나 흐르거나 또는 달리는 과정에서 침묵과 움직임 간의 긴장과 조화로움으로 인간 존재의 불안과 갈망, 그리고 소통에 대한 열망이 강렬하게 표현되었다. 무엇을 위해 소통하고 가치를 두고 언어로 내뱉는가의 문제가 그 이상의 형태와 방향성을 몸 언어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하며, 침묵 속에서 더욱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몸의 움직임이 시각적 예술을 넘어, 인간의 내면과 사회적 관계를 성찰하는 철학적 탐구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34회 부산무용제에서 발레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제14회 2005년 김정순 예술감독, 김수희(행브르발레연구회) 안무 이후 20년 만이다. 더 과거로 가서 1960년대 김혜성과 푸리마발레단이 부산 발레 역사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부산 지역 무용계 발전에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받은 것처럼 이번 부산아이디발레단의 수상이 지역 발레

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무용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하지만 수년간 지속된 문제인 대상 수상 단체의 전국무용제 준비를 위한 연습 공간 부족 문제는 부산무용협회뿐 아니라 부산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한 과제이다. 매년 부산을 대표하여 전국무용제에 참가하는 단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부산시는 부산무용협회의 전문적인 기획력과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 무용계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무용가, 관객, 이론가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연습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부산 무용계의 발전과 한국 무용 예술의 진흥을 견인하고, 나아가 부산이 국제적인 무용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1 부산역사문화대전 항목ID GC04213622 부산무용제
https://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13622

피란수도 부산에서 피어난 예술과 기록들

『한국 근현대 화가들의 부산시대』

글_박진희 미술평론, 기획

피란수도 부산, '부산시대'를 열다

우리가 한국 근현대 미술가들의 삶과 예술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시대와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예술혼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해방공간, 한국전쟁이라는 근대사의 격동 속에서 예술가들은 끝내 창작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서울의 중앙화단 작가였던 이중섭, 김환기, 장욱진 등과 문신, 전혁림, 김종식 등 부산·경남 작가들은 한국전쟁으로 부산에서 개인적 고난과 사회적 트라우마를 예술로 승화시켰다. 『한국 근현대 화가들의 부산시대』는 한국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예술을 포기하지 않았던 미술가들의 창작 의지와 그들이 모여 활발히 활동했던 '부산'이라는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 책이다.

지금껏 한국전쟁기 미술은 한국미술사 연구의 사각지대였다. 연구의 관점이 서울 중심의 시각에 갇혀 있었고, 미술사적 연의 접근은 중앙화단 작가에 한정되어 온 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기의 임시수도는 '부산'이었고, 정치·경제·행정뿐 아니라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했다. 임시수도이자 피란지였던 부산은 지역과 중앙, 장르를 넘는 예술 융합의 시공간이 되었다.

피란지에서의 전시 활동과 예술가들의 연대

1950년 6·25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남하했으며, 이들이 모여든 곳이 임시수도가 된 '부산'이었다. 이 시기 부산은 단지 정치적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전쟁기 한국 문화의 마지막 보루로 기능했다.

전쟁 중에도 피란 화가들과 부산·경남의 지역 화가들은 미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화가들은 다방이나 학교 등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했고, 예술 이념이 맞는 작가들끼리 모여 동인전을 열기도 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생존 방식이 아니라, 예술을 통한 전쟁에 대한 저항이자 삶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 시기의 예술가들이 자주 모였던 공간 중 하나는 '다방'이었다. 다방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공간 이상으로, 예술인과 지식인들의 대화와 토론의 장, 정보 교류의 공간이자 문화 혼성 공간이었다. 소규모 음악회, 시 낭독회, 미술 전시회, 시화전, 출판기념회 등이 다방에서 열렸다. 밀다원, 금강, 르네상스, 휘가로, 실로암 등은 작가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미술계 흐름을 논하는 문화 장소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다양한 미술 의식과 함께 동인들의 결성이 이루어졌다. [토벽

동인전], [신사실파전], [후반기 전], [기조전] 등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의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국 미술계의 나아가갈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영향 관계는 전쟁이 끝난 후 각자의 지역에 머물러 있던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한국 미술이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본다.

모두의 '부산시대'

피란수도 부산은 단순히 중앙화단의 피난처로 머물지 않고, 지역화단과의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중앙화단의 대표 작가로는 이중섭, 김환기, 장욱진, 천경자, 이응노, 박수근, 도상봉, 유영국 등이 있다. 이들은 전 시회를 주도하거나 새로운 예술 흐름을 도입하며 전세기 한국 미술의 방향성을 찾고자 하였다.

한편, 부산 및 경남 출신 혹은 이 지역에 정착한 작가들의 활동도 활발했다. 문신, 전혁립, 김종식, 송혜수, 김경, 임호 등은 지역에서 후진 양성에 힘쓰며 지역화단의 성장을 주도했다.

한국미술사에서 우리가 밝혀야 할 중요한 점은 부산·경남 지역 작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명이다. 이 책은 중앙화단과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균등하게 발굴하여, 작품과 활동을 상세히 다루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창작이 단지 부산이라는 지역 내부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한국 현대미술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근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에는 '부산'이 있고, '부산시대'가 있다. 부산과 경남 작가들에게도 타 지역 작가들과 함께했던 '부산시대'가 있다. 이는 작품들과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부산시대'는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예술의 의지가 가장 뜨거웠던 예술문화의 전성기였다. 피란수도 부산은 새로운 삶의 공간이자 문화 공간이었다.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이루어진 미술 현상들은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전환의 동력을 제공했다.

『한국 근현대 화가들의 부산시대』는 단순히 전세기 미술을 중앙화단의 시각에서 피란기를 기술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의 관점은 '부산'이 가진 장소성, 그



리고 '임시수도'이자 '피란지'로서의 공간적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서울에서 내려온 중앙화단 작가들의 시각이나 활동 중심의 기록이 아니라, 전세기 미술 활동이 특정 지역인 '부산'이라는 지정학적·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과정에서 부산이라는 공간이 단지 전쟁의 피난처가 아닌, 문화 창작의 자율적이고 뜨거운 현장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 1 김종식_인간가족, 캔버스에 유채, 119.5×89.5cm, 1954, 김종식미술관 소장
- 2 이중섭_길 떠나는 가족, 종이에 유채, 29.5×64.5cm, 1954, 개인소장
- 3 한독_꽃과 두개골, 캔버스에 유채, 21.5×16.7cm, 1953, 개인소장

진정 ‘시민이 연극보기 좋은 도시’를 위하여

글_최용혁 예술감독

2025년 4월 3일 개막한 ‘제43회 부산연극제’가 1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4월 20일 폐막하였다. 대한민국연극제의 예선 성격을 지우고 벌써 세 번째 개최된 부산연극제이기에 한 번은 지면을 빌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부산연극제가 걸어온 길을 진단하고, 현재 어디쯤 머물러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글이 끝맺어질 때면 청사진이 보이기를 바라본다.

1983년 전국에서 각 지방 연극제가 시작되면서 함께 진행된 전국연극제가 대한민국연극제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활발히 매년 각 시도를 돌며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별 연극의 부흥을 끌어낸다는 장점도 있겠으나 매년 한 작품씩 대표작을 선정하여 출품케 하는 측면에서 경쟁을 과열시킨다는 일견 연극정신을 위배하는 단점도 함께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연극 자체가 비극경연에서 시작되었다는 서구 우수한 전통이 있지만, 동양연극의 철학으로 경쟁보다 화합, 어울림이 중시된다고 믿는 필자의 생각에서는 옳고 그름이 아닌 다양한 연극을 향유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왔고, 이에 전국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연극제의 예선 성격을 지운 축제형 ‘부산연극제’가 열리게 되었다.

최초 세 명의 운영진이 컴컴한 바다 소극장에 앉아 첫 기획을 하던 때가 문득 생각난다. 축제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래서 연극제가 어떻게 변모해야 하는지 아주 장시간 회의를 이어 나갔다. 그러면서도 경연을 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약간은 허무할 수밖에 없었다. 수

상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저를 매기는 순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량적인 작품에 대한 평가는 득보다 실이 많다. 내 행위가 점수 매겨질 때 느끼는 박탈감은 괜히 없어도 되는 불만과 부정적 감상을 일으킨다. 3년 내내 본 연극제는 이러한 몸살을 겪어왔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본디 주관적인 측면이 배제될 수 없다. 하물며 극단마다 다 다르게 생긴 작품을 비교하는 일이야 어찌 취향의 차이가 배제될 수 있으랴. 이럴 때마다 가끔은 정확한 기준의 프롬프트를 입력한 인공지능에 심사를 맡기고 싶다.

매년 연극제의 슬로건과 컨셉을 만드는 일은 예술감독을 비롯한 모든 운영진에게 제일 어려운 일 중 하나이다. 그해 연극제의 성격을 규명하는 문구이자 모든 순간에 녹여내야 하는 강박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이전 연극제는 다소 단순한 문구로 정의했다. ‘시민’을 녹여내달라는 클라이언트의 주문에 두 명의 운영진이 며칠 밤을 앓으며 고심해 낸 문구가 ‘부산 연극, 시민과 함께 여기 모이다’였고 이를 ‘모이다’로 압축했다. 그다음 해에는 ‘만들다’로 압축했고, 다음 해에는 ‘즐기자’로, 모여서 만들어 즐기자는 3년의 연속성을 가진 슬로건으로 준비해 왔다. 하지만 2년을 진행해 보니 연극제의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한 것이 좋겠다고 느껴졌고 이에 지금 부산 연극에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결론은 결국 사람이었다. 사람이 부족한 것이 제일 아쉬웠기 때문에 이미 자리 잡아 연극을 어찌둥둥 만들어오는 나를 포함한 윗세대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발붙일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리하여 탄생한 슬로건이 바로 '청년이 연극하기 좋은 도시, 부산'이다. 긍정 또는 부정의 평가가 벌써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지만, 최소 100인 이상의 청년이 부산에 있다는 발견과 그들이 '아, 이게 부산 연극이구나'라는 위로는 나름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싶다. 물론 이 이후의 세대는 어떻게 연극제에 담아낼 것인가 하는 아주 긴밀하고도 어려운 숙제가 남아있음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벌써 내년 슬로건을 고민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년에는 우선 청년 아닌 다른 세대들을 부산 연극이 나서서 알려줘야 함이다.

미뤄왔지만 결국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평이 끝날 것 같지 않아 참여작에 대한 이야기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023년 부산연극제는 축제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섹션 가리지 않고 지원한 모든 작품을 선정하였다. 협회원 극단만 가능했던 참여를 개방하여 비회원 극단까지 총 19개의 경연작과 1개의 초청작으로 스무 작품이 공연되었다.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과 최대 200만 원의 단체상 상금이 배정되었다. 심사위원은 총 6명으로 평론가, 연출가뿐 아니라 배우까지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2024년 부산연극제는 작품이 너무 난립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1,500만 원이 지원되는 2개의 협회원 극단의 작품과 1개의 초청작을 제외하고 최대 상금 1,000만 원으로 7개 경연작만 선별하여 축소 진행하였다. 심사위원은 서류심사의 3명, 실연심사 5명으로 총 8명이었다.

예술감독이 되고 보니 가장 곤란할 때가 작품에 대한 평가를 직접 들을 때이다. 분명 1차 서류 심의를 할 때는 우수해 보였던 작품도 막상 뚜껑을 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올해는 직접 모든 섹션 1차 심의에 참여하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위원을 섭외하여 진행했다. 그리고 2년간 프로그래머로 참여했을 때는 작품으로 참여하기도 했었기에 사정상 한 발짝 떨어져서 불구경하듯 했는데, 이번

은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위해 전 작품 관극하였다. 어쩌면 안일하게도 이제야 문제점을 파악했다.

필자 역시 연출가이기에 아주 조심스러운 제언이지만 향후 부산 연극의 발전을 위하여 지면 관계상 딱 두 가지만 직언하고자 한다. 우선 철학의 부족이다. 철학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 내리자면 결국 질문을 유발하는 사유의 확장이다. 올해 관극한 작품 중에서는 이 사유를 제시하는 작품이 몇 개 없었다. 이미 답을 내려놓고 제시하는 척을 한 다거나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 사유 자체를 방해하는 작품이 더러 있었다. 둘째는 관습의 악순환이다. 연극은 제약이 명확하기에 오히려 창의적인 상상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정도로 사고를 차단하는 장면이 많았다. 상상할 여지를 만들어줘야 관객이 숨을 쉬며 작품을 볼 수 있다.

열세 번의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몇 안 되는 부산 시민들이지만 부산 연극을 얼마나 애정하는지 알 수 있었다. 어떻게든 극단과 말 한마디 더 섞어보기 위하여 또는 자신이 얼마나 이 작품을 잘 봤는지 극단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부산 시민들은 공연이 끝나고도 돌아가지 않고 마음 열어서 앉아 객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 우리도 경연이 아닌 향연으로, 전 세대 연극인이 정성껏 아주 잘 만든 연극으로 그들과 만날 수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갤러리 인터페이스 기획전

심준섭 ‘인터-넥서스 INTER-NEXUS’

글_백근영 한국화가

현대미술 담론 형성과 동시대 미술의 고민을 위해 기획된 심준섭 작가의 ‘인터-넥서스 INTER-NEXUS’ 전시가 갤러리 인터페이스에서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밝은 화이트 큐브 형태 공간 속 파이프와 스피커를 결합한 형태 및 인간 내부 기관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에 파동을 묘사한 평면 드로잉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인간의 숨소리와 심장박동 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고 있는데, 순간 이질적 공간에 와 있다는 착각을 들게 만드는 연출이 사뭇 인상적이다. 소리는 공간 안쪽 어두운 암전 속 오디오 스피커에서 나오는 것으로, 소리의 반응에 따라 중앙에 설치된 영상 내 음폭 변화와 양 벽면 은판도 소리의 울림에 즉각적 반응을 보인다. 작품들은 마치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적 느낌으로 소리를 통해 상호 소통한다.

전시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작품의 매체로 사용된 파이프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음과 영상 속 이미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작업을 일차원적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떠오르는 질문이다. 심준섭은 ‘소음’이라는 사전적 의미의 시끄러운 소리, 잡음 등을 자연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소리의 의미보다는 도시 문명이 발생함에 따른 인위적 소리로 접근하여 이를 작품에 적용하였다고 말한다. 이는 그의 이명 증상에 기인한 것으로 시작됐다. 약 20년간 겪은 증상에 따라 파생된 현상의 연구 결과인 것이다. 많은 것을 보고 듣는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음에 대한 인식의 관점을 새롭게 주지시킨다. 전시의 주제인 인터와 넥서스는 연결, 관계 중심의 사이라는 뜻과 함께 작품을 통하여 관객과 탐색하고 소통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소리와 지시된 이미지들을 통해 인간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관계 설정 작품으로 인식된다.

작가는 현재 전시에서 시각적 기술 요소로만 작업을 진행했던 이전 작업에 변화를 주고, 시·청각적 요소의 결합과 함께 그 대상의 주체로 몸 안에 숨어있는 기관에 초점을 맞추었다. 신체 내부는 곧 ‘보이지 않는 소음’이 내재되어 있는 공간이라 정의하며, ‘표현 방법의 다각적 방향성 측면에서 어떻게 전달 및 소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진행되었다고 말한다. 이어서 작가 파울 클레 Paul Klee가 했던 말 “예술은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언급한다. 연계 선상에서 작품들은 보이지 않는 기관의 내부적 유기체 소리나 형식을 적용하며 관객에게 직간접적 상상을 유도한다. 특히 소음을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청각적 주파수 관계와 연계적 의미로써 작품에 노출하고 있다.

뇌과학자들은 현대인들에게 백색소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의식 속 무의식적 반응을 전달하기도 하며, 다양한 반응과 스트레스를 준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맥



심준섭_들리지 않는 소음, 영상 사운드 아트, 스피커, 마이크, 철관, 사운드 시스템, 영상 시스템, 400×180×500cm, 가변크기, 2025

락에서 보면 누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성 신호가 있음을 의미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한다. 그는 작품에서 일정하고 반복적인 소리와 정제된 평면 드로잉 이미지, 파이프 형태들을 통하여 관객들에게 일종의 무의식적 반응을 포함한 시각 및 소음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하고 새로운 관점의 전달을 의도하고 있다. 이는 마치 인간과 사회의 생태학적 관계와 현대 문명의 복잡한 관계 설정의 개념을 증명하고 작품에 적용하고 있는 그 의미를 떠내고 할 수 있겠다.

작품들은 전시 공간 속 인간 신체 기관과 도시 문명이 결합된 다원 예술로써, 도시와 인간 사이 관계성을 뜻하기도 하고 메타포로 투영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더 나아가 관객에게 현실과 환영을 오가는 경험을 하도록 의도를 심어놓음으로써, 미묘한 상황을 연출해 나간다. 결과적으로 기계 구조물과 소리를 이용한 디지털 방식을 매개체로 한정된 공간 속 느끼게 되는 불안감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을 작품에 투영하고 있다. 다변화된 사회에서 동시대 미술의 역할을 보여주고 또 느끼게

하고 싶은 생각들이 반영된 결과물인 것이다. 작가는 현상을 공간에 재구성하여 적용하고, 상황이 공간을 재창조하고 어떻게 인식을 바꿔 놓는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관객들의 탐구를 유도한다.

심준섭은 앞서 언급하였듯 인간·도시·문명 간의 상호보완적인 의미로 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현대 인간 생태계 및 문명 간의 관계성에 주목한다. 작품은 형상의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며 내러티브 한 장면들의 연속으로, 사회 내 존재하는 일반화의 관점에서 벗어나 그 만의 이야기를 예술로 이끌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조와 존재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고 예술의 본질에 다가선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정의는 일상적 경계를 지우고 생각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다각적 예술로 우리 사회 내 새로운 이면적 모습을 상기 시켜준다는 것에 의의가 있겠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반문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며, 동일 맥락에서 그는 본인이 가진 철학과 기술의 매체를 통하여 현대사회의 다변적 예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과 서예XI

정법한 사세를 갖춘
기장의 청정도량
앵림산 안적사



안적사의 창건 설화와 피꼬리의 상징성

산에는 그 지형과 어울리는 사찰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부산 기장군 앵림산 자락에 위치한 안적사는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고요한 산사의 정취를 간직한 사찰로, 조화롭고 단정한 법당 구조를 갖춘 청정한 도량이다.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격조 있는 모습은, 외형의 화려함보다는 내적인 단아함을 추구하는 전통 산사의 미덕을 보여준다. 안적사는 기장을 초입에 위치한 앵림산에 자리하고 있다.

『경주도회좌통지도慶州都會左通地圖』와 『지승地乘』의 「기장현지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18세기 당시 국가가 목재를 보호하고자 출입을 제한했던 봉산封山으로, 특히 금강송이 울창하게 자라는 송산松山으로 알려져 있었다. 안적사의 창건에 얽힌 설화는 고승 원효와 의상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두 스님이 장산 기슭에서 수행하던 중, 숲속에서 날아온 피꼬리 떼가 그들 앞을 뚫으며 길을 인도하듯 날아들었다. 이에 원효대사는 이곳이 범상치 않은 신성한 장소임을 깨닫고, 현재의 자리에 사찰을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피꼬리 떼가 길을 막았다는 데서 산 이름을 ‘앵림산鶯林山’이라 하였고, 두 스님이 이곳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의 이치를 깨달아 적멸寂滅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여 사찰 이름을 ‘안적사安寂寺’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피꼬리가 나무 위로 가볍고도 우아하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가리켜 ‘앵천鶯遷’이라 한다. 이 말은 본래 과거에 급제하거나 진사進士에 입격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인근의 큰 고을인 동래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고을인 기장에서 더 많은 유학자가 배출된 것도, 그 시원을 앵림산과 안적사에서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안적사는 그 설화 속 상징성과 더불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영적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공간으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다.

안적사의 덕명 스님과 서예가들의 교류

『기장읍지機張邑誌』(1786년 편찬)에 따르면, 조선 후기 기장 지역에는 선여사, 안적사, 취정사, 장안사가 4대 사찰로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안적사는 원효대사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범어사를 중창한 묘전화상에 의해 다시 세워졌다. 근현대에 들어서는 안적사 주지와 범어사 제15대 주지(1978~1982)를 역임한 남곡당 덕명 스님이 의해 사세가 크게 정비되고 중흥되었다. 안적사의 가람에 남겨진 현판은 단순한 건물 표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현판은 당대 주지 스님과 서예가 간의 교류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 시기의 사찰 위상과 예술적 교류의 단면을 드러낸다. 일주문 입구에 걸린

〈앵림산 안적사鶯林山安寂寺〉 현판을

비롯해 〈천왕문天王門〉, 〈종루鐘樓〉, 묘사채인 〈보림원寶林院〉의 현판은 우재牙齋 이다우李多雨의 서체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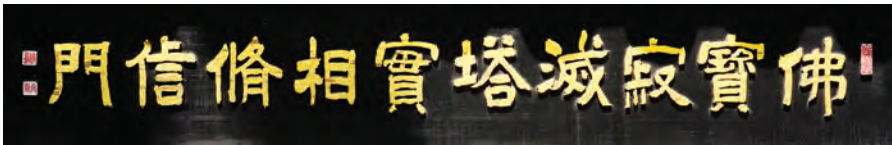
안적사安寂寺_만당 성주표



앵림산 안적사鶯林山 安寂寺_우재 이다우

종무소 정문의 <안적사> 현판은 만당^{晩堂} 성주표^{成周杓}의 글씨다.

특히 <불보적멸탑실상수신문^{佛寶寂滅塔實相脩信門}>이라 쓰인 현판은 안적사가 석가여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성소임을 상징하며, 이 글씨는 서예가 청남 오제봉의 작품이다. 오늘날 사찰 곳곳에 남겨진 현판은 덕명 스님 재임 시기 서예가들과 깊은 인연을 보여주는 문화적 유산이기도 하다. 만당 성주표는 대전 출신의 서예가로, 불국사 범종각, 범주사 금강문, 청도 운문사 청신암 등 여러 사찰에 현판을 남겼으며, 우리나라 진보학계의 상징적 인물이자 성공회대학교 교수였던 신영복의 옥중 서예 스승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신영복의 대표작 소주 <처음처럼> 한글 글씨체^(일명 어깨동무체)의 원형이 된 인물로 평가받는다. 또한, 우재 이다우는 서예 활동의 전모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기장 지역을 중심으로 글씨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선비로 알려져 있다. 그는 부산시 무형문화유산 사기장 김운태의 상주요 가마에서 제작되는 도자기에 자주 글씨를 써넣었으며, '우재' 또는 '요암^{堯巖}'이라는 호를 사용하였다. 특히 도화^{圖畵} 작업에서는 '요암'이라는 이름을 더 자주 썼다고 한다. 이처럼 안적사의 현판은 단지 서예 작품의 집합에 그치지 않고, 한 시대 수행자와 예술가 간의 교류를 증언하는 귀중한 문화 기록으로서, 사찰의 역사적 깊이와 예술적 품격을 함께 보여주는 사료인 것이다.



불보적멸탑실상수신문^{佛寶寂滅塔實相脩信門}_청남 오제봉

청남 오제봉과 불교계의 인연

청남^{靑南} 오제봉^{吳濟峯}(1908.8.26.~1991.11.27.)은 서예가이자 불교계와 깊은 인연을 맺은 인물로, 한국 근현대 서예사에서 중요한 자취를 남긴 작가이다. 그는 1923년, 해인사의 주지였던 환경^{幻境}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불문에 입문하였으며, 이때부터 글씨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해인사에서 머무는 동안 그는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화봉 유엽^{柳燁}, 동봉^{東峰} 하동산^{河東山}, 금봉^{錦峰} 최범술^{崔凡述} 등 당대의 선승들과 교류하며 예술적·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1937년에는 진주의 의곡사 주지로 취임하여, 이후 환속하기까지 22년간 사찰을 이끌었다. 이 시기 오제봉은 사찰에 출입하던 추사체 서예의 대가 성파 하동주에게 사사하며 본격적인 서예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1955년, 부산으로 거처를 옮긴 오제봉은 대각사 주지였던 맥문^{麥門} 김홍경^{金弘經}을 비롯한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독립된 서예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같은 해, 부산 중구 광복동의 미화당 백화점에서 열린 제1회 개인전은 그의 작품 세계를 대중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안과 의사이자 서예가였던 운여^{雲如} 김광업^{金廣業}과 함께 대각사 경내에 동명서화원을 설립하였다. 이 서화원은 부산 최초의 서예 학원으로,

지역 서예교육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1968년에는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3층 건물을 마련하고, 그중 3층에 '청남묵연회(靑南墨硯會)'라는 간판을 걸었다. 이 공간은 서예교육과 교류의 중심지로 기능하였으며, 1990년에는 제자들에 의해 '청남문화재단'으로 연계된다. 오제봉은 불교계와의 인연을 통해 다수의 사찰 현판을 남겼다. 그의 글씨는 부산·경남 지역의 주요 사찰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작품들은 사찰의 성격과 수행적 의미를 글씨로 절묘하게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작품으로는 부산 범어사의 <포덕섭중(布德攝衆), 향곡 스님과 성철 스님이 수행했던 기장 묘관음사의 <묘관음사(妙觀音寺)>와 <산호당(珊瑚堂), 해인사 지족암의 <지족안거(知足安居), 울산 가지산 선남사의 <장엄적멸도량(莊嚴寂滅道場)>과 <침계루(枕溪樓), 고성 옥천사의 <연화산 옥천사(蓮華山玉泉寺), 산청 내원사의 <대웅전(大雄殿)> 등이 있다.

그의 서예인생을 기리며 : 청남 오제봉 서력비

1991년 7월 1일, 청남묵연회와 청남문화재단은 평생을 서단에 바치며 후학 양성에 헌신했던 청남 오제봉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부산 중앙공원에 청남 오제봉 서력비를 세운다. 이 비는 높이 240cm의 화강암으로 조성되었으며, 비면에는 청남이 직접 짓고 쓴 시 한 수가 새겨져 있다. 이 시는 그의 서예 인생 전반을 압축적으로 담아내며, 붓과 벗하며 살아온 한 예술가의 내면세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한없는 글에서 노닐던 즐거움, 평생토록 내 싫어하지 않았다네

무한서유락(無限書遊樂) 평생오불厭(平生吾不厭) - 청남 오제봉



청남 오제봉 서력비(중앙공원) © 구주환 사진

이 시구는 청남의 삶 그 자체이자, 서예에 바친 한 평생의 진실한 고백이자 유산이다. 서력비 곁에 함께 세워진 오석(烏石)에는 서력비의 건립 경위와 선생의 약력이 앞뒷면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건립문은 시인 민립(民立) 김상훈(金尙勳, 1936-2016)이 짓고, 경재(敬齋) 조영조(曹寧助)가 썼다. 김상훈은 부산일보 사장과 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한 언론인이자 부산문인협회 회장과 민족사가연구소 이사장을 지낸 문인이며, 조영조는 마지막까지 청남 곁을 지키며 서예를 수학한 제자였다. 건립문 말미 '청남은 평생 필묵을 벗 삼아, 청산에 흰 구름처럼 살며 그 삶에는 맑은 향기가 가득하였다'고 칭송했다. 오제봉 서력비는 그의 예술정신과 사제간의 인연, 서예의 본질적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상징적 기념비이자, 부산 서단의 근현대사를 응축한 문화적 증표이다.

글_이현주 부산시 국가유신위원

부산 도심
하천 복원 전략,
‘뚜껑(복개) 걷어내기’ 부터
출발해야





부산은 바다와 산, 강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항구도시입니다. 바다를 보기 위해 부산을 처음 찾는 외지인들은 부산의 산들을 보고 놀랍니다. 지형이 평평한 항구도시인 줄 알았는데, 곳곳에 제법 높은 산들이 도시를 에워싸고 있으니까요. 외지인들에게 부산의 진산 금정산(801.5m)이 한반도의 뼈대를 이루는 백두대간인 태백산맥에서 분기한 낙동정맥의 끝자락이라고 말해주면 그제야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부산이 태백산맥의 끝자락이자 시작점이어서 산이 많구나!”라면서요. 부산의 한가운데에 있는 황령산에 오르면 도심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장산은 해운대 주민의 지독한 사랑을 받는 힐링 공간입니다. 구덕산, 구봉산, 천마산, 엄광산(석탑봉), 장군산, 진정산, 쇠미산, 백양산, 봉래산, 금련산, 달음산, 철마산, 개좌산, 승학산, 굴암산과 연대봉(가덕도) 등도 부산의 평균 해발고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산은 태백산맥에서 남쪽 방향의 금정산맥과 금련산맥, 동서 방향의 강서산맥으로 나뉜 전형적인 배산임해(背山臨海)의 지형적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에는 이들 산을 발원지로 한 크고 작은 도심 하천이 곳곳에 있습니다. 부산 북구와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지역의 낙동강 삼각주를 관통하는 ‘한반도 대수로’ 낙동강은 510km나 떨어진 강원도 태백시 황지(黃池)가 발원지입니다. 부산 도심 하천들의 발원지는 당연히 금정산맥과 금련산맥, 강서산맥입니다. 국가하천은 국가가 관리하지만 지방하천은 지방정부, 즉 부산시나 산하 지자체가 관리해야 합니다. 부산의 경우 국가하천은 낙동강 본류(20.26km)와 서낙동강(18.55km), 평강천(12.54km), 맥도강(7.84km), 수영강(9.0km), 온천천(3.79km) 등 6곳입니다. 부산의 지방하천 45곳 가운데 교외(郊外)인 강서구와 기장군 지역의 하천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택이 밀집한 도심 하천이어서 치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산의 ‘속살’을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지방하천 45곳의 이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필자도 원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도심 하천명이 많았습니다. 괴정천(5.37km, 사하구), 학장천(5.87km, 사상·부산진구), 덕천천(3.70km, 북구), 대리천(1.69km, *), 대천천(5.44km, 북·금정구), 보수천(3.03km, 중·서구), 구덕천(0.69km, 서구), 초량천(1.671km, 동구), 부산천(1.80km, *), 동천(5.50km, 동·부산진·남구), 전포천(2.67km, 부산진구), 호계천(1.61km, 동·부산진구), 부천천(4.62km, *), 가야천(2.75km, *), 남천(2.57km, 남구), 춘천(6.44km, 해운대구), 우동천(1.99km, *), 수영강(17.34km, 금정구·기장군·양산시), 온천천(9.45km, 동래·금정구), 석대천(8.19km, 해운대구·기장군), 조만강(4.80km, 강서구), 지사천(8.27km, *), 송정천(3.57km, 강서구(좌안)), 해반천(0.97km, *), 호계천(3.65km, *), 신어천(0.85km, *), 효암천(4.53km, 기장군), 장안천(8.70km, *), 용소천(4.34km, *), 좌광천(14.50km, *), 덕선천(3.30km, *), 동백천(2.52km, *), 일광천(6.68km, *), 죽성천(4.50km, *), 만화천(2.90km, *), 서부천(3.29km, *), 송정천(5.60km, 기장군·해운대구),

철마천(8.90km, 기장군), 구칠천(2.07km, *), 이곡천(2.66km, *), 송정천(2.35km, 금정구·기장군), 임기천(2.58km, 기장군), 삼락천(4.60km, 사상구), 감천천(2.90km, *) 등인데, 이처럼 도심 하천 이름은 행정동명(行政洞名)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하천은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합니다. 큰 하천의 경우 농·공업 용수나 각종 물자를 운반하는 수운(水運)의 통로, 식수원으로 활용됩니다. 도심 하천의 경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부산 도심 하천 중에서도 동천은 필자의 주거지(아파트) 지척에 있습니다. 동천의 수질이 좋고 나쁜은 필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니 동천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부산진구 부암동 백양산에서 발원한 동천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부산 최대의 도심지를 관통, 부산항 자성대 부두 인근 바다로 합류합니다. 서울로 치면 청계천과 같은 하천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청계천을 완전히 되살려 놓아서 서울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지만, 동천의 수질은 여전히 3~4급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시가 오랜 기간 엄청난 예산을 투입, 동천 살리기 사업을 펼쳤지만 수질 수준은 여전히 바닥입니다. 오죽했으면 '동천'이 아니라 '똥천'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입니다. 필자를 포함해 동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여름 보내기가 정말 겁납니다. 동천에서 풍기는 지독한 악취 때문입니다. 겨울철은 그나마 견딜만했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지난겨울에는 내내 악취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필자를 포함한 동천 인근 주민들은 다가올 여름에 맞닥뜨릴 악취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렇다면 왜 동천 수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을까요? 부산시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하천 복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가야천과 부천천, 전포천, 견우천, 문현천, 좌천

등 동천으로 합류하는 많은 지천이 있지만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아스팔트로 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천 주변의 주민들은 하천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천 복개는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하천의 기능을 포기한 '무식하고 무자비한 조치'입니다. 복개되면 햇빛을 볼 수 없어 광합성이 불가능하므로 수생식물 등은 자라지 못합니다. 햇볕과 수생식물에 의한 자정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또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악용, 하천(지천) 인근 업체들은 폐수를 마구 방류하고 인근 주민들도 생활하수를 합부로 버리게 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증설하더라도 주민들이 쏟아내는 엄청난 양의 오염원을 처리하기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개최를 계기로 동천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까지 마련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동천 정비계획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지하수를 유입시키고 하루 3만t 규모의 가동보와 수질정화 장치를 설치하는가 하면 하수관도 정비했습니다. 2009년에는 수질 개선을 위한 유지용수 확보 사업을 진행, 하루에 북항의 해수 5만t을 끌어올려 동천에 흘리는 사업도 펼쳤습니다. 그 결과 5급수이던 동천 수질이 3급수까지 개선되면서 승어가 대량 출현하자 해당 자치구가 수질 개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승어낚시대회까지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지금도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니깐요. 동천 바닥을 꾸준히 준설하고 주변 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보도(산책로)를 깔고 녹지대를 조성했지만, 이는 외형상 변화해 준 것일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동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한다면 영원히

결실을 보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것이 필자만의 판단일까요? 지천이 복개된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동천의 근본적인 수질 개선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필자는 일본 대마도 이즈하라시 도심 하천과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앞바다에서 펼쳐진 광경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2018년 지인들과 부산에서 두시간 거리에 있는 쓰시마섬 남부 소재 이즈하라(嚴原)시를 방문했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일행과 산책하던 중 이즈하라시 도심을 흐르는 강폭 5미터 정도의 하천을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천에는 손가락 크기의 복어 새끼 떼가 새카맣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즈하라시의 인구가 1만 5천여 명이니 우리나라의 작은 읍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생활하수 등을 하천에 마구 쏟아냈다면 하천은 버려질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뚝물이 흐르는 하천에 복어 새끼들이 몰려들 리가 만무했을 거고요. 당연히 이즈하라의 하천은 복개되지 않는 자연 상태 그대로였고, 악취는 눈곱만큼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2000년 봄쯤으로 기억하는데, 취재차 찾았던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만은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바르셀로나 항만청 앞바다는 명경지수(明鏡止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깨끗했고, 그래서 인인지 수많은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인들이 바닷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에 앉아 여유롭게 햇볕을 쬐며 즐기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부산항은 바다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을 때였거든요. 바다를 깨끗하게 관리함으로써 친수공간(親水空間)으로 삼아 즐기는 바르셀로나 시민의 노력과 지혜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즈하라 하천과 바르셀로나 항만의 관리 방법에서 동천을 포함한 부산 도심 하천들의 '정상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필자는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예산 1천억 원이 아니

라 1조 원, 10조 원, 100조 원을 투입한다고 동천을 물고기 노니는 생태하천으로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모든 지천에 뚜껑이 덮여 있는 한 동천은 영원히 되살리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천 정화 사업을 위한 예산이 확보된다면 하류의 동천을 주물럭거릴 것이 아니라 상류 지천의 뚜껑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물론 예산 사정 때문에 지천의 뚜껑을 한꺼번에 걷어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10년, 20년, 50년, 100년이라는 장기계획을 세워 한 구간씩 뚜껑을 걷어내기 시작한다면 언젠가는 모든 지천의 모습이 드러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모습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천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건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했습니다. 뚜껑이 열리면 인근 주민들의 생각부터 바뀔 것입니다. 주민의 생각이 바뀌고 수질 보전을 위해 동참할 때 하천 수질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계천이 되살아 난 결정적 이유는 하천을 덮고 있던 뚜껑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담당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천의 뚜껑을 닫아놓은 채 영원히 '뚝물 흐르는 동천'을 원합니까, 아니면 뚜껑을 걷어냄으로써 지천도 살리고 동천도 살릴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부산시 입장에서는 동천뿐만 아니라 모든 부산의 도심 하천을 살려야 합니다. 예산 뒷받침이 어렵다면 1970년대 산업화 이후 2025년 현재까지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천에 집중, 상류 지천의 뚜껑을 하나씩 철거하는 '시범사업'을 펼치는 것은 어떨까요?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도심 하천 뚜껑을 조금씩 걷어내는 것이 천 리 길 가는 '진정한 첫걸음' 아닐까요? 그것이 느리지만 빠른 길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느리지만 빠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할 때입니다. 도심 하천 복원을 위한 부산시의 '인식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글_심수화 언론인, 칼럼니스트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부산예총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

2025. 4. 3.(목) 오후 12시 부산 진구 함양가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조유장 부산시 문화국장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4월 3일 오후 12시에 부산진구 함양가에서 부산예총(회장 오수연)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시 예술문화 발전 논의를 위해 개최된 간담회에는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조유장 부산시 문화국장과 관련 실무진이 참석했다. 부산예총은 오수연 회장과 김인숙 수석부회장, 강종관 부회장(부산사진작가협회 회장), 권성은 부회장(부산음악협회 회장), 김두진(부산건축가회 회장), 강명옥(부산국악협회 회장), 남선주(부산무용협회 회장), 최장락(부산미술협회 회장), 이정남(부산연극협회 회장), 안규성(부산연예예술인협회 회장)으로 8개의 협회가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설계를 거쳐 내년 공연장으로 거듭나는 부산예술회관 강연장 리모델링과 대형 전시장의 필요성 및 부산 예술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부산예술계를 선도하는 부산예총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며, 부산예술문화와 부산예총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도모했다.

2025년 제1차 부산예총 임시총회 개최 및 윤종국 신임감사 선출

3. 24.(월)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예총은 지난 3월 24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2025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대의원 62명의 참석으로 진행된 이번 총회의 안건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파산으로 인한 한국예총 회원단체의 제적에 따른 부산영화인협회 제적의 건 ▶신호국 감사 사임으로 인한 부산예총 감사 선출의 건이 상정됐다. 감사는 조직 및 운영규정 제17조 1항 5조에 의거해 정회원단체 임원 중에서 대의원 추천으로 윤종국(동명대 건축학과 교수) 후보가 단독후보로 선출됐다.

부산문화재단, 부산예총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

2025. 4. 17.(목) 오후 12시 부산 남구 호호정



오재환 부산문화재단 대표

부산문화재단(대표 오재환)과 부산예총(회장 오수연) 회장단은 4월 17일 부산 남구 호호정에서 부산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문화재단 오재환 대표를 비롯해 예술창작본부장 등 실무진 5인이 참석했고, 부산예총은 오수연 회장과 김인숙 수석 부회장, 강종관 부회장(부산사진작가협회 회장), 권성은 부회장(부산음악협회 회장), 김두진(부산건축가회 회장), 강명옥(부산국악협회 회장), 남선주(부산무용협회 회장), 박혜숙(부산문인협회 회장), 최장락(부산미술협회 회장), 이정남(부산연극협회 회장), 안규성(부산연예예술인협회 회장)으로 9개의 협회가 함께해 소통했다. 부산문화재단 오재환 대표는 지역 문화예술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화기관 간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예술가들의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은 예술가들의 불편사항이 협회를 통해 접수되고 있어 11개 단위 협회 회장들과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각 협회 회장단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협력의 의사를 표했다.

제21회 송혜수 미술상에 서양화가 예유근 선정



부산미술협회(회장 최장락)는 제21회 '송혜수 미술상'에 서양화가 예유근(70) 화백을 선정했다. 송혜수 미술상은 부산 화단 1세대 서양화가인 故 송혜수(1913~2005) 화백의 작가 정신을 기리고, 평면과 입체 분야에서 20년 이상 왕성한 작품 활동을 지속해 온 만 60세 이상인 작가를 대상으로 포상한다. 예유근 화백은 부산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서양화 전공)와 홍익대 대학원 회화과(서양화 전공)를 졸업하고, 1983년 우리나라 최초의 대안공간 '사인화랑'을 운영했다. 1981년 부산미술대전 서양화 부문 금상, 1990년 제1회 청년미술상을 받았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부산 비엔날레 이사 부산미술인촌 추진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이양우 심사위원장은 "예유근 화백의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세계가 이번 수상을 통해 더욱 조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시상금은 수상기년전 지원금 500만 원을 포함해 1,000만 원이 지급되며, 6개월 이내 금련산갤러리에서 시상식과 전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5 부산전국체전 연계 문화예술축제 '부산아트빌리지' 설명회 열어

2025. 4. 22.(화) 오후 4시 30분 서면 롯데호텔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4월 22일 서면 롯데호텔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관계자 회의 및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 환영만찬'식을 개최했다. 이는 부산시를 방문하는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에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해외동포선수단 준비상황 안내 및 상호협력 방안논의를 위한 제9회 세계한인체육회장 대회 지원계획 행사의 일환이다. 올해 부산에서 시행되는 2025 부산전국체전 연계 문화예술축제 '부산아트빌리지'는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의 공동 주최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이 직접 참여해 '부산아트빌리지' 설명회를 가졌다.

부산아트빌리지는 2025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영화의전당과 부산콘서트홀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부산아트빌리지 in 마라톤 페스티벌'과 '부산아트빌리지 in 클래식'으로 구성됐다.

'부산아트빌리지 in 마라톤 페스티벌'(10.21~22. 영화의전당)에서는 부산예총 11개 협회와 함께하는 예술문화 체험으로, 시민들이 참여해 2025 바다미술제와 감천문화마을 등 부산의 관광지와 연계한 굿즈 교환권 이벤트가 진행된다. 부산 출신 스포츠인 명사 특강과 릴레이 콘서트는 풍물놀이, 동래학춤, 국악을 비롯해 전자바이올린, 스포츠댄스, 태권무, 부산예술회관합창단 등 지역성과 향토성이 가미된 무대가 펼쳐진다. 다소니음악회는 부산시민과 전국체전 참여 체육인, 예술인, 16개 시도 전국예총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예술장르를 선보인다.

'부산아트빌리지 in 클래식'(10.22. 부산콘서트홀)은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한 클래식 공연장인 부산콘서트홀의 파이프로르간 연주 감상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오케스트라와 부산 출신 유명 성악가들의 클래식 향연이 펼쳐진다.

오수연 회장은 "2025 부산전국체전 연계 문화예술축제 '부산아트빌리지'는 부산예술과 부산의 아름다움을 전국에 알릴 기회이자 전국 시도 체육인들과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만큼, 부산다운 기획으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 부산발레시즌 Shining Wave

5. 10(토) ~ 5. 11(일)
토 오후 5시 / 일 오후 3시
영화의전당

〈Shining Wave〉는 2024년 초연된 창의적인 발레 작품으로, 예술감독 김주원의 연출로 제작된 공연이다. 본 작품은 정영 시인의 시 8편을 연시로 엮은 스토리에 맞춰 안무에 따라 몸으로 쓰이는 시이다. '소년, 고래, 바다, 바다의 정령, 고래잡이 사내들'이라는 등장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몸짓으로 이야기한다. 출연진으로는 2025 시즌 부산 오페라하우스 발레단과 주역 무용수 윤전일, 이은수, 정혜윤, 박지수가 함께 주인공으로 나선다. 이번 공연에 참여하는 무용수들은 반짝이는 물결처럼 성장해가는 모습으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문의 051)780-6060



구르기 좋은 날!

5. 3.(토) ~ 5. 15.(목)
복합문화예술공간 MERGE?

노주련은 오랜 작업 과정에서 빚어진 작가 고유의 조형 단위인 큐브Cube를 기초로 관객과 소통하는 예술가이다. 벌룬 Balloon으로 제작된 그의 큐브는 정육면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공기를 주입함에 따라 부풀어 오르면서 점차 둥글어진다. 이 기묘한 형태의 큐브는 정육면체와 같은 정연함을 추구하지만 정연함에서 벗어나 있는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고, 인간 의식의 틀 속에 가둬진 본성이기도 하다. 노주련은 둥근 정육면체를 세상이 비치는 재질로 만들어 굴리면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고찰한다. 큐브는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되묻는다.

문의 051)527-8196



한일 꽃꽂이·이케바나 교류전 마음을 잇는 꽃, 더 나은 미래로

5. 15.(목) ~ 16.(금)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1, 2층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부산한일문화회, 부산꽃예술작가협회, 이케바나 오히라류 서울지부 부산SG와 공동으로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인 꽃꽂이와 이케바나를 부산시민에게 선보이는 교류전을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교류전에는 일본 3대 이케바나 유파 중 하나인 오히라류小原流를 초청하여 작품 전시와 더불어 시연회 및 워크숍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거시적으로는 양국 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시적으로는 작가 간 인적교류를 촉진하여 한일 우호 증진의 장을 마련한다.

문의 051)464-3554



햇살 의자 정서연 / 책펴냄열린시

시인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것들을 따스한 감성으로 노래하여 두 번째 시집으로 엮어냈다. 특히, 시집의 제목이 된 「햇살 의자」에서는 별 좋은 날 길목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햇살의 온기를 만끽하며 따뜻한 상상의 아지랑이를 피워내는 시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만남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그저 헤진 마음을, 그늘진 가슴을/햇살에 내어놓으면/절로 따뜻하다(「햇살 의자」 부분)’. 잠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시인은, 자신의 가슴속 그늘진 부분까지 다 비춰주는 듯한 햇빛에 안정감을 가졌을지 모른다. 시인 특유의 감성으로 표현한 일상 속 풍경들은 햇살이 비치는 의자처럼 따스한 온기와 안정감을 선사한다.



아동문학을 돌아보다 박일 / 세종출판사

‘동심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며 시적인 것의 본질입니다.’ 아동문학을 동심 그 자체로 바라보는 저자는 동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기의 천재 피카소가 아이처럼 그리기 위해 일평생을 바친 건 아주 유명한 얘기다. 이처럼 사회화가 끝난 성인이 잃어버린 동심을 끌어내 발산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총 4부로 구성된 책의 1부에서는 성인이 동심의 감각을 되살려 아동문학을 쓰는 방법과 분석이 쓰여 있다. 2부부터 4부까지는 다양한 부산 아동문학과 아동문학 작가에 대한 저자의 고찰이 담겨 있다. 저자의 평론과 분석은 어린이들이 사라져 가는 현실 속 아동문학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해준다.



그때 살았다면 박근호 / 해암

시인의 3번째 시집이다. ‘1894년쯤에 이 나라에 살았다면/조선에 역센 바람이 몰아쳐 불던 때이니/아무래도 나는 동학혁명군이 되었을 것이야(「그때 살았다면」 부분)’. 시인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상상을 그대로 시로 풀어낸 것이, 짧은 소설처럼 느껴지게 한다. 시인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사물이나 풍경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다룬 「먼 별의 타이탄」과 「생명의 손익분기점」 같은 작품만 보더라도, 시인이 얼마나 생각을 거듭하고 시를 써 내려갔을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겨울 민들레」와 같은 작품에선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상을 시상으로 다루기도 했듯이, 다양한 시도가 담겨 있다.

2025 부산예총

가마래와 리잉 추추제 죽

2025.
5.26(월) ~ 6.1(일)
부산시민공원

전시 · 5.26.(월) ~ 6.1.(일) 10:00 ~ 18:00

메인공연 · 5.31(토) 17:30 ~ 19:00

체험 · 5.31(토) ~ 6.1.(일) 13:00 ~ 17:00

부대공연 · 6.1.(일) 14:30 ~ 19:00

주최 | 부산예총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관 |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건축가회 부산국악협회 부산무용협회 부산문인협회 부산미술협회 부산사진작가협회 부산연극협회 부산연예예술인협회 부산음악협회 부산꽃예술작가협회 부산차문화진흥원

협력 | 부산진경찰서 부산광역시여성회관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부산광역시지사 (재)부산문화재단 신라대학교 동명대학교 녹색여성연합회 동인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WBC복지TV 하나장매인직업재활시설 WAPA세계문화예술진흥회

후원 |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

특별후원 | BNK 부산은행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방 성 빈 BNK부산은행 은행장

정 은 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해주시면

-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he 39th Busan Youth Arts Festival

부산청소년 예술제

와글와글 예술파밍

개막식 공연 4.27.(일) 14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와글와글 예술파밍 4.26.(토)~4.27.(일)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
- 청소년 건축상상마당 5.11.(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회의실
- 청소년국악제 5.17.(토)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청소년무용예술제 5.4.(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청소년시낭송대회 5.17.(토)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 학생그림공모전 5.19.(월)~5.24.(토)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 학생사진공모전 5.7.(수)~5.10.(토) 부산시민회관 제1전시실
- 찾아가는 푸른새싹공연예술축제-청소년예술어울마당 5.16.(금)~5.17.(토)
- 2025 청소년 K-POP 페스티벌 5.24.(토)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부산청소년음악회 5.20.(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청소년꽃다발만들기대회 5.24.(토)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 부산청소년 세계차문화예술제 4.27.(일)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

2025. 4. 26.(토)
- 5. 24.(토)

부산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관 | 부산건축가의 부산국악협회 부산무용협회 부산문인협회 부산미술협회 부산사진작가협회 부산연극협회 부산연예예술인협회 부산음악협회 부산꽃예술작가협회 부산차문화진흥원

후원 |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 특별후원 | BNK 부산은행 KYOBO 교보생명 부산FP본부

문의 |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TEL. 051)631-1377 www.artpusan.or.kr/



제21회 부산국제무용제 특별초청

CARMINA BUR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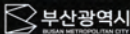
현대 발레극 <카르미나 부라나>
세계적 명성의 헝가리 세계드현대발레단 공연



티켓 예매 interpark 티켓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www.dureraum.org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A석 학생 단체 10,000원 > 기타 단체 할인 정보 예매처 문의

2025. 6.5. | 목 | 오후 7시 30분
6.6. | 금 | 오후 3시
6.7. | 토 | 오후 3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영화의전당 dureraum

후원 | MAGYAR MŰVÉSZETI AKADÉMIA



MINISTRY OF CULTURE AND INNOVATION

Liszt Institute Hungarian Cultural Center Seoul

협찬 | BNK 부산은행 STX Corporation STX Green Logis STX Sun Ace Shipping

제21회 부산국제무용제

2025. 6. 4. | 수 | - 8. | 일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광안리해변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부산의 숨은 명소 **다대포**(아미산 전망대)

부산의 서쪽 끝에 위치한 다대포해수욕장은 드넓은 백사장과 갈대밭, 그리고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합니다. 아미산 전망대에서는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내려다보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자연의 콜라보, 부산

강이 끝나는 곳에서 바다가 시작되고 갈매기와 철새가 함께 나는 곳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기다린 끝에 맞이하게 되는

해와 강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낙조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다대포만의 풍경을 연출하죠.

부산이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대포라는 작품

부산을 사랑합니다

※ '부산을 사랑합니다' 광고는 BNK부산은행 직원 및 직원가족으로 구성된 홍보모델 'B-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촬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정가 5,000원



9 771976 974008

ISSN 1976-9741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